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

2018. 6. 22(금) 오후 2시30분
한국기독교교회관 에이레네홀



디아코니아포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교회관 705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koreandiakonia.org kd@koreandiakonia.org

■ 제2회 디아코니아 포럼 순서

■ 1부 기도회

메시지 : 손인웅 목사 (한교봉 명예회장)

인사의 말씀 및 기도: 정성진 목사 (한교봉 공동대표회장)

■ 2부 세미나

주제 :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

좌장 : 김동배 교수 (포럼 대표)

발제 : 이준우 교수 (강남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회장)

토론 : 양혜원 교수 (총신대 사회복지학과)

이정우 목사 (지구촌교회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신천 목사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무총장)

질의 및 응답

광고 : 천영철 목사 (한교봉 사무총장)

■ 목차

발제 :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 / 이준우	2
토론 1. 양혜원	52
토론 2. 이정우	56
토론 3. 정신천	61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

공공신학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들여다보고 내다보기¹⁾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학회장

I.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서 그 어떤 종교집단이나 민간조직보다도 활발하게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고 있으며 열정과 헌신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다.²⁾ 실제로 한국사회는 기독교인들이 천주교나 불교보다도 사회복지실천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³⁾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⁴⁾ 심지어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커다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⁵⁾ 교세는 위축되고⁶⁾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⁷⁾ 있다.⁸⁾ 한국사회

- 1) 본 발제 원고의 토대는 이준우(2017)의 “공공신학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사회복지실천의 성격과 과제”와 이준우(2016)의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성과 연구”의 일부를 대폭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 2) 이준우(2016: 34)에 의하면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그 어떤 조직들보다도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적극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불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여타의 종교들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사회복지실천을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펼쳐왔고 소외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사회복지시설들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2005년과 2010년에 개최되었던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는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교회봉사단(2017)의 『한국교회봉사단 창립 10주년 기념자료집: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는 한국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들과 2016년에 개최된 ‘디아코니아 코리아 2016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행사 등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 3) 한국교회봉사단(2017)이 연구한 “한국교회 사회봉사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경험과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종교를 천주교나 불교가 아닌 기독교라고 응답하였다.
- 4) 한국교회봉사단(2017)의 “한국교회 사회봉사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천주교와 불교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봉사 활동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응답에서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기독교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이유 역시 ‘전도 수단으로 삼아서’, ‘보여주기 식으로 활동해서’라는 두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사회봉사 활동이 양적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도의 수단 혹은 보여주기 식의 봉사라고 인식되면서 그 진정성을 외면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 5) 이준우 외 2인, 『기독교 이해 그리고 삶』 (고양: 서현사, 2015), 254.
- 6) 2017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예장 통합총회(총회장:이성희 목사)와 기장총회(총회장:권오륜 목사)가 사

에서 교회는 공적 책무를 감당하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개교회적이며 사적인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교인들끼리 모여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예배하며 각종 교회 활동을 교인들 중심으로만 할 뿐,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세상에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일에는 무심해 보이는 현실이다.⁹⁾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시편 42편 3절).”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딱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가슴 아픈 일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 사회와의 소통의 어려움, 개교회주의, 기복주의, 신앙과 영성의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 암묵적 차원에서 교회의 정치 세력화 등이 만연해짐으로써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판은 격렬해지고 있다.¹⁰⁾

이렇게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데에 있다. 한국의 개신교가 불교나 가톨릭보다 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한 실적이 더 많지만, 사회적 신뢰도나 호감도 면에서 두 종교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 교회의 사회적 존재 방식의 문제가 사회적 활동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활동으로도 사회적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존재감’ 내지 ‘사회적 인가(認可)’를 확보하지 못했음¹¹⁾을 드러낸다.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삶은 철저히 개인주의화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자기중심적이며 내세적이고, 기복신앙의 대명사가 개신교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전 공개한 교세통계 결과에서는 교인 수 감소가 매우 두드러졌다. 더욱이 교인 수 감소 추세는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예장 통합총회 통계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전체 교인 수는 2015년 278만9천여명에서 2016년 273만여명으로 약 5만8천여명 감소했다. 2.09%나 줄어들어든 결과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교세 감소 수치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교인 수는 2016년 12월 기준 24만여명으로, 2015년 26만4천여명보다 2만4천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증감률로만 보면 9.06%에 달한다. “기장 1년새 교인 ‘9% 감소’, 통합은 6년째 줄어,” 「아이굿뉴스」, 2017년 9월 13일.

- 7)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7)의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 18.9%, 불교 21.3%, 가톨릭 32.9%의 순으로 나타나 기독교가 3대 종교 중 신뢰도가 최하위로 파악되었다. 특히 무종교인의 경우, 가톨릭 신뢰도는 36.5%, 불교 신뢰도는 18.1%, 기독교 신뢰도는 불과 6.9%로 나타났다.
- 8) 이준우, 『교회사회복지실천의 새 지평: 복지선교와 복지목회』 (파주: (주)나남, 2014), 5.
- 9) 노영상, “21세기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구: 공공신학의 신학적 의의와 윤리적 과제,”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제2회 정기논문 발표회 자료집(2008), 1-18.
- 10) 장신근,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공공신학의 형성 배경과 지형에 대한 연구,”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제1회 정기논문 발표회 자료집(2008), 1-24.
- 11) 급기야 최근(2018. 03. 14)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서를 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내려보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 대한 종교 강요, 후원 강요 등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가운데서도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종사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병자하여 종사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행위이다.

한국교회의 공공성 확보는 한국교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당연히 한국교회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지역사회라는 현장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펼쳐져야 한다. 사랑한다는 백 마디 말이나 사랑으로 드러지는 예배와 기도, 다양한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실천, 나아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일이 단지 교회 내의 교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의 이익과 힘을 자랑하는 도구로서 표현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일이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한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나타나야 하며 아울러 교회사회복지실천과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공공성을 담보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공공신학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교회사회복지실천과 기독교적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신학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고 미래를 향한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하나님의 선교와 공공신학

전통적인 선교¹²⁾와는 달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은 교회나 인간 대행자가 선교의 주체나 수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준다. 하나님의 선교에 의하면 선교는 먼저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조주, 구세주, 거룩하게 하시는 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교회는 이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¹³⁾ 즉, 선교는 먼저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선교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그것을 섬기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¹⁴⁾

그 결과 선교는 교회 개척이나 영혼 구원과 같은 교회 중심적 목적들에 제한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교로서 인류와 우주의 온전한 복지를 지향하여야 한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나라는 하나님의 주

12) 전통적으로 ‘선교(mission)’라는 용어는 지리적 확장(geographical expansion)을 의미한다. 선교의 의미가 이렇게 지리적 영역에 한정되면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으로 이해된다. 통상 이러한 선교는 일방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가령 서구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들로 퍼져가는 복음전도 활동으로 인식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선교사는 복음 확장의 대행자(agent)가 된다.

13)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Orbis books: 1991. 김병길·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69-71.

14) 박보경, “선교적 해석학의 모색,” 『선교신학』 18(2008), 78-79.

권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이 나타나는 나라를 말한다.¹⁵⁾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의 삶을 포괄하는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피조물, 인류와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그 하나님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활동인 것이다.¹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이며 동시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지향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선교를 바라보는 것이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교회는 선교의 목적이 아니다.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다. 그것은 선교의 결과인 것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¹⁷⁾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보내시는 것은 교회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는 관점을 의미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참여하는 것¹⁸⁾이다.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다.¹⁹⁾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개교회 중심적인 보수신학의 경향이 강한 한국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적인 열정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면서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교회의 선교적인 역할을 창의적으로 정립해서 실천하는 데에 미흡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가난을 해결하며, 민주화를 달성하는 운동으로만 각인되어 결과적으로 역동적인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한 후에 드러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의 선교로 왜곡되고 그 잘못된 이미지²⁰⁾는 철저히 박제화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보수적인 한국교회 진영에서는 교회의 복음적인 사명이 아니라 사회행동 내지 사회운동 나아가 사회복음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고착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욕구와 요

15) 강아람,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해석학,” 「선교신학」 36(2014), 11-45.

16) Christopher JH.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InterVarsity Press, 2013. 정옥배·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서울: IVP, 2010), 32-36.

17) 정승현, “선교의 성경연구 동향분석,” 「미션네트워크」 1(2012), 1-21.

18) Rosin(1972)에 의하면 선교는 단순히 개인의 회심,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교회를 세우라는 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모든 구속된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우려는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의 가장 높은 신비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내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선교와 더불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가 된다(이형기, 2009 재인용: 51-62).

19)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인 교회 빌링겐 IMC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20(2007), 178-196.

20) 하나님의 선교가 본래 의도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교회는 선교 공동체라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선교적인 정체성이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구 등이 분출하고 있다. 각 개인의 성향과 집단 및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등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펼쳐지고 있다. 아울러 개인적인 차원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시적 차원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 지구적인 자원 고갈, 사회적 불평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환경 파괴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²¹⁾

사회적 책임이란 사회적인 불평등과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성숙해 가도록 노력하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지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현대사회를 주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교회의 선교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 개인구원이니 사회구원이니 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효용 가치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 전통적인 교회 중심의 선교는 이미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²²⁾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다시금 주목받아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비록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초점을 맞추게 하는 면이 있음에도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무엇이 사회적 책임’이며 ‘무엇이 진정한 시민의식’인지, 도대체 공공성(Publicness)과 공공선(Common Good)을 왜 실현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난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²³⁾ 그런 면에서 ‘지금-여기’라고 지칭되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삶의 상황들을 포괄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뒷받침하는 신학적 토대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공공성과 공공선을 살펴보면, 공공성이란 공적 영역에서 교회가 의미 있는 종교조직이라는 것을 세상에 설득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회도 사실 사회적 제도이다. 사회적 제도가 세상을 향해 의미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제도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교회가 하지 않으면 교회도 세상 속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선이란 내가 좋은 것만 아니고, 내가 좋은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을 뜻한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세상에게도 좋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교회가 피해나 혹은 손해를 보더라도 세

21) 손의성,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써의 교회의 지역복지거버넌스 참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2(2014), 311.

22) 전통적인 선교 방식은 주로 서구(혹은 한국과 같은 신흥 선교 수행 국가)에 의한 기관, 교단, 선교단체 중심의 형태로 비서구 사회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에서 기관의 확장과 생존에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접근이 정보화된 과학기술 문명 현실에서 그 효용성과 적절성에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비판받고 있다. 일례로, 과연 그와 같은 선교 방식이 복음의 대상자와 그 지역사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교단, 선교단체 등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먹여 살리는 선교사들의 밥벌이를 위한 것인지를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23) 이형기, 『하나님나라와 공적 신학』(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이형기(2009)에 의하면 빌링겐 IMC(Willingen Conference of International Missionary)에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정립되었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단어는 Hartenstein이 컨퍼런스 보고서에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20세기 중반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들과 선교적인 과제들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에게 정말 좋은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공공선인 것이다. 이와 같은 교회의 공공성과 공공선에 대한 진지한 탐구, 즉 ‘신학의 공공성’ 모색의 일환으로 ‘공공신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공공신학은 현대사회 속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개교회주의, 기득권화, 물질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발전과 성숙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나갈 증거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²⁴⁾

2. 공공신학과 교회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의 관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며 동시에 그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나라를 향해 가장 뚜렷하게 초점을 맞추는 ‘현장’이다.²⁵⁾ 이와 같은 개념은 교회를 신앙공동체로서 보게 한다. 기독교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그 존재 이유 자체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공공신학에 토대를 두고 활동해야 한다. 또한 공공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사적인 일로 제한하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공공신학은 하나님이 신앙인과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임을 천명한다. 공공신학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한다.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다 포괄한다.²⁶⁾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특정한 신조나 신앙고백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신학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신학은 개별 그리스도인과 교회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나타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고민한다.²⁷⁾ 결과적으로 공공신학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사사화(私事化)’하여 개인 구원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경향을 경계한다. 교회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개인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발굴하고 성숙시켜 가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는 현장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점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신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일과 가정의 사생활에만 적용되는 제자로서의 삶과 주일을 제외한 날에 학교, 직장에 적용되는 시민으로서의 삶

24) 손의성,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써의 교회의 지역복지거버넌스 참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2(2014), 312-313.

25) Lesslie Newbigin, “The Congregation as Hermeneutic of the Gospel,”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222-233.

26) Deirdre K. Hainsworth & Scott R. Paeth eds.,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r of Max L. Stackhouse* (Grand Rapids: Eerdmans, 2010), 17-23.

27) Lesslie Newbigin, “The Congregation as Hermeneutic of the Gospel,”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182-183.

을 분리하지 않기 위해 이원론적 사고를 피하게 도와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공적 세상, 즉 학교와 기업, 병원, 극장, 식당, 공장 등으로 나아가도록 해 준다.²⁸⁾ 또한 공공신학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삶은 제외된 채, 구호로만 외치는 복음 전도는 아무런 사회적 반향도 불러 올 수 없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반감만 증폭 시킬 것이다. 여기에서 공공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앙인이나 신앙이 전혀 없는 이들과도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공공신학은 협업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²⁹⁾

그래서 공공신학은 교회가 좋은 삶의 구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는 창조 질서의 경향을 따라 잘 사는 것이 바로 공공신학의 주제가 된다. 기독교 교리는 사랑과 정의, 인간됨의 의미와 실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한다.³⁰⁾ 이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교리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복음의 표현 양식’임을 전제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현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복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가능해진, 성령을 통해 성자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앙은 사적 견해가 아니라 공적 진리이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전에는 그분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확장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³¹⁾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관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받은 소명은 대단히 ‘공적’인 사명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기억되며, 그리스도가 기념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탐구되는 공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수행하는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공공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신학은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기본 원리들 가운데에 핵심이 된다. 특히 박종삼(2016)³²⁾은 ‘복음’은 진리이며, 그것도 ‘공적 진리’라는 Newbigin(1995)³³⁾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에

28) Max L. Stackhouse, “The Pastor as Public Theologian,” *The Pastor as Theologian*, ed. Earl E. Shelp, Ronald H. Sunderland (New York Pilgrim, 1988),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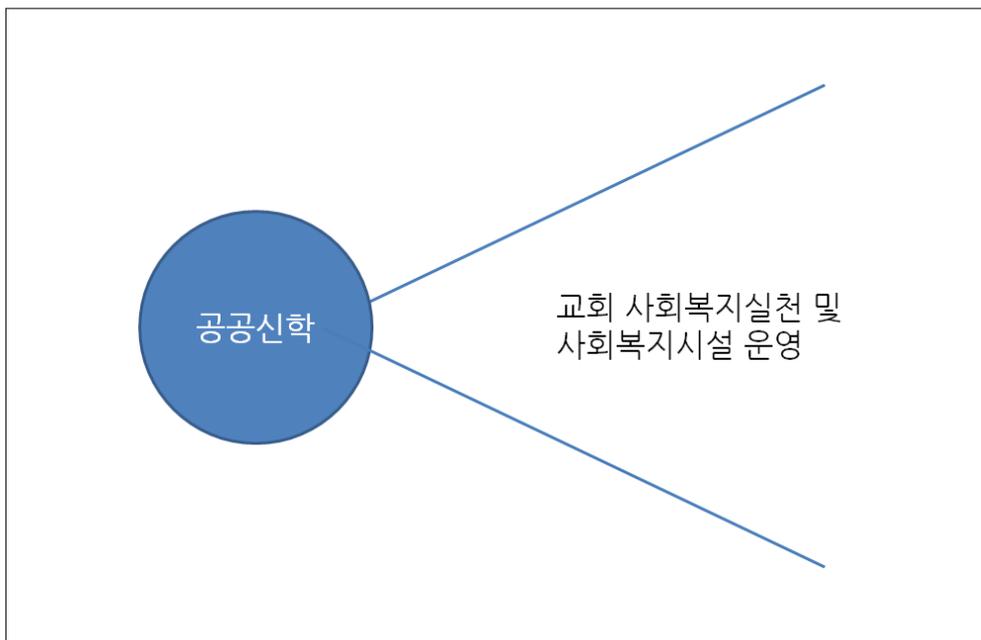
29) Deirdre K. Hainsworth & Scott R. Paeth eds.,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r of Max L. Stackhouse* (Grand Rapids: Eerdmans, 2010), ix.

30) Miroslav Volf,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s, 2011), xvi.

31) Lesslie Newbigin,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Grand Rapids: Eerdmans, 1995), 8.

32) 박종삼,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2016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16, 8-33.

대한 확신을 갖고,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기독교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신학적 자리매김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교회는 ‘가난한 이웃을 향한 사회복지실천’과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전도의 도구로만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림 1] 공공신학과 ‘교회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의 관계

이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은 ‘교회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핵심적인 신학 관점으로 삼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신학은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전 지구촌이 하나님나라가 이루어질 선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공공신학에 의하면 교회는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회 현장에서 신학이 적용되게끔 한다. 이러한 공공신학적인 접근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교회의 직접적인 사회복지선교 자원과 교회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자본도 하나님의 복지 자원으로 활용되고 연결되게끔 한다.

3. 공공신학 관점의 연구 분석 틀

이상의 공공신학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차원으로 연구 ‘분석 틀’을 설정하면서 각 차원에 따라 각각 두 개의 질문을 도출하였다. 이들 차원

33) Lesslie Newbigin,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Grand Rapids: Eerdmann, 1995), 8.

들과 질문들을 통해 앞서 정리한 공공신학 관점³⁴⁾이 실제적인 연구 분석에 적용될 수 있게끔 했다.

<표 1> 연구 분석 틀

첫 번째 차원: 사업의 배경 혹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추진된 배경 혹은 필요성이 교회 성장이나 교인의 신앙 성숙 등 교회의 필요와 욕구인가? - ‘공공성(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과 ‘공공선(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을 달성하기 위함인가?
두 번째 차원: 사업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표는 개별 교회 혹은 교인들을 위해서인가? - ‘공공성’과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세 번째 차원: 사업의 내용과 수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대상에 대한 수행 과정은 어떠한가? - ‘공공성’과 ‘공공선’을 위해 사업 내용이 준비되고, 수행 과정이 진행되었는가?
네 번째 차원: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수행한 후,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였으며 평가한 내용은 향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 ‘공공성’과 ‘공공선’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였는가?

이와 같은 연구 분석 틀을 통해 한국교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과 실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사업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해 볼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³⁵⁾으로 진행하였다. 즉, 다양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34) 공공신학의 관점은 ‘공공성’과 ‘공공선’으로 설정하였다. ‘공공성’은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긍정적인 사회적 존재감이 어떠한지’로 개념화하였고, ‘공공선’은 ‘교회 사역이 교인 이외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유용한 정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기운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기운실’로부터 수상 받은 교회들이 제출한 ‘사역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 대상 사례로 삼아 진행하였다. 그런 후에 106개 교회를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추후 점검하였다. 그 결과 87개 교회가 지속적으로 수상 받은 사업들을 시행하거나 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교회 사례의 현재 상황은 제외하고, ‘기운실’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축소된 경우를 담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연구의 제한점이 된다.

35)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전문적인 개입 활동인 사회복지실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관련된 고민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의 분석 기준과 수준을 설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기독교사회봉사, 사회선교, 사회복지선교,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

취합한 후, 취합한 자료들을 교단별, 법인별, 교회별로 묶어 각각의 단위 사례로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주제별로 목록화해서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런 후에 분석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서술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과 범위는 3개의 상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교단 차원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례를 1개의 상위 영역으로 묶어내고자 했고, 이는 하위 2개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었다. 즉, 하나는 각 교단별 사회복지실천의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다음은 그에 따른 실제 사업 내용이었다. 둘째는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차원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례들이었다. 여기에서도 하위 2개의 영역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단체, 즉 NGO 중심의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이었고, 두 번째는 개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이었다. 셋째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이하 기윤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간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에 기술된 사례들이었다.

그런데 교단 및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사례들 가운데에서 ‘기윤실’ 사례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는데 이럴 때는 이들 사례들에 관한 내용은 ‘기윤실’ 사례에서 다루었다. 결과적으로 ‘기윤실’ 사례들이 집중적인 연구 분석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에 속한 사례들인 교단 및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들은 고지된 관련 홈페이지 자료들에 기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사례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 각각 천차만별이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들은 최대한 끌어내려고 애썼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다만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까지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례 분석은 ‘기윤실’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기윤실’ 자료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는 실제 수행되었던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들 가운데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있고, 동시에 수집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여건에서 ‘기윤실’의 자료는 매우 높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기윤실’의 자료는 무엇보다도 ‘시상’을 위해 주최 측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형태의 문서로 공모에 응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후,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

지실천, 교회사회복지실천, 교회사회사업, 기독교사회참여 등의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박종삼(2000)과 이준우(2014)의 입장을 종합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봉사 활동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개념에 부합하는 경우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정의하였다. 즉,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실천의 의지와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는 선교 의지, 이 두 가지 요인이 동기가 되어 교회 내지 기독교 단체 혹은 기독교 기관이 사회복지실천의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자원동원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사회복지적인 관점을 가진 목회자, 교회사회복지사,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교회의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공식적인 종교복지법인 시설 혹은 기관, 교회 시설 또는 학교와 병원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적 문제해결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아 실시되는 일련의 복지활동”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하여 진행되었다.

적이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모범 사례들이었다. 더욱이 ‘기운실’ 자료의 특성은 주최 측에서 제시한 형식에 맞춰 각 개별 교회들이 실행하고 있는 교회 사회 복지실천과 부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업들을 사업의 배경(필요성), 목표, 내용, 결과(평가) 등을 담아 기술하게 되어 있어서 제출된 각각의 단위사업들을 비교하여 살펴 보고자 할 때, 매우 편리하였다. 실제로 ‘기운실’의 자료는 조사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용이하였다. 그래서 ‘기운실’의 자료를 ‘공공신학’ 관점에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연하면 ‘기운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고 취합한 후, 이를 주제별로 목록화해서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시사점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IV. 들여다보기: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례 분석 결과

1. 교단 차원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교단적인 차원에서 상설부서 및 산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여러 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총 11개 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각 교단별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정책

각 교단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신학선언과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래에 제시한 교단들의 경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이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각 교단별 설립목적과 사회복지정책 내용

순	교단명	설립년도	설립목적	사회복지정책 내용
1	구세군 대한본영	1908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군대'라는 구세군의 정체성에 따라 영혼구원, 민중계몽, 여성지위향상, 시대적 상황에 따른 사회구원	영적 복음과 물질 복음으로 표현되는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목표로 ① 가난한 자의 구원사업, ② 지속적으로 기회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 ③ 스스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해서 선교요원으로 재생산되도록 지원, ④ 소외된 계층과 공감을 통한 동행과 성장, ⑤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2	기독교 대한감리회	1885	그리스도인의 복음 체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신경 제6항 “복지사회 건설: 우리는 부를 독점하여 사회의 균형을 깨뜨리는 무간섭 자본주의를 거부하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

			복된 사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 추구	회주의도 배격한다. 우리는 온 국민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3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1907	국내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령세례를 전하여,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기 위해 교회를 설립	성결의 복음은 ‘사회적 성결’ 없이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더욱 힘 있게 전하여 모든 사람을 중생하게 하며 교인들을 성결한 신앙생활로 인도하여 주의 재림의 날에 티나 주름 잡힘 없이 영화로운 교회로 서도록 돕는다. 교인의 복지사업, 수행사업, 구호사업, 교단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긴급재난구호단을 운영한다.
4	기독교 한국침례회	1889	캐나다 독립선교사 말콤 펜윅(Malcom C. Fenwick)의 선교사업으로 출발하여 전도와 선교를 지상목표로 신앙정신 구현	총회기관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침례병원, 침례신문, 군경선교회, 교역자복지회, 해외선교회 등이 있으며,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을 통해 사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5	대한성공회	1889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과 모든 창조 질서에 선포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한 사회참여 실천	교회의 근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의 전파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화에 기여하고 봉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나눔과 섬김의 영성을 근거로 사회적 소수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생 배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타파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
6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한신)	1936	순수 복음주의 신앙을 계승·발전시켜가며 복음과 교회본질 회복	교역자 및 교인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사업과 교육사업, 수양관 운영 등 기독교 사업과 교역자 은급금 문제 등을 취급할 복지원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7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1948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반대를 통해 한국교회의 재건운동 실천	본 교단에 소속된 교역자와 국외 파송자 및 총회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역자의 퇴직, 공상으로 인한 은퇴 후의 생활비 보조와 사망시 유족의 생활비 및 복리향상을 위해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 두는 은급제도를 운영한다.
8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통합)	1876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102회기 총회주제인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와 연관하여 마을목회의 핵심인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삼고 기존의 사업을 배치한다. 예비모임과 준비모임을 마친 가칭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창립대회(11월 말 예정)를 기점으로 지역의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사랑으로 겨울나기 사업 등)과 대사회적 책임사업(인권, 환경, 생태정의 등)을 결합하여 총회 주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다.
9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합동)	1912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대내외적인 섬김과 나눔의 사역에 동참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10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	1907	미국인 C.E 카우만과 E.A 길보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실한 체험을 받은 후, 구령에 불타는 심정으로 동양 모든 나라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설립	사회복지국은 헌장 제89조 7항에 의하여 ① 사회복지업무와 교회의 복지활동에 관한 사항, ② 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③ 후생복리를 위한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④ 장학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천사운동에 관한 사항의 방향으로 사업을 실천한다. 또한 목회자 최저생계비 해결, 은급재단 활성화, 사회복지법인 설립, 상담소 활성화에 초점을 둔다.
11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1879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	기독교신앙에 기초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함께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갱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전적인 복지를 실천한다. 사회선교정책 “① 정의와 평화공동체 선교, ② 민중 지향적 사회선교, ③ 사회이념의 선도, ④ 세계패권주의와 군사, 정치, 경제 지배체제의 극복, ⑤

		는 대안공동사회 건설	남북한 분단현실의 극복, ⑥ 폭력사용의 죄성과 신앙적 결단, ⑦ 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참여”
--	--	-------------	---

각 교단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정책을 정리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그 특징들이 나타났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그 본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통로로서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의 삶을 지향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각 교단의 사회복지 정책의 핵심은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이 만나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 즉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참된 교회는 ‘지금 여기(now & here)’에 예수를 닮은 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존재하여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와 같은 일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접근이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기독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라고 강조되고 있었다.

둘째는 각 교단이 지향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일반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철학, 이념 등과는 달랐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선한 열매는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이 되는 실천의 토대는 일반 사회복지실천과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즉 일반 사회복지실천의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반면 각 교단의 사회복지 정책은 기독교적 영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념이 핵심 가치로 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각 교단의 사회복지 정책은 자칫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바로 각 교단과 산하 교회들이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을 복음전도(전도 내지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다. 물론 성경적이며 바른 영성에 기초한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사회복지실천과 복음전도(전도 내지 선교), 이 두 사역이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승효과를 가져 오도록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각 교단의 사회복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회복지실천을 수단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다. 그러므로 향후 공공신학 관점에서 공공성과 공공선이 표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은 선교의 수단이 아니며 선교의 자연스런 결과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실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상자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예수님이 증거 되는 것도 아니다.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만 진정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자기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령님께 의지하여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려주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사회복지실천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복지실천과 선교를 솔직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단돈 1원이라도 받거나 교회 이외의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

을 조금이라도 지원받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전도의 도구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사회복지를 통해 직접적인 선교를 구체화 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교회의 자원만으로 해야 한다. 자연히 이는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이 아니라 복지선교로 개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선교 활동 속에 사회복지실천이 개입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나라’라고 한다면 선교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고자 직접 행하신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눅 7:21-23, 17:14, 18:42; 마 8:3, 9:30; 막 7:35, 8:25; 요 9:7 등).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행복하게 공존하는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영적 구원과 복지문제(신체·심리·사회·직업 등)를 해결하는 전인적인 복지선교가 나타나야 한다.

선교는 상호 연관되는 영적 구원과 복지, 이 두 개의 큰 축이 통합되는 순간 ‘복지선교’로 거듭나게 된다. 사람의 영적 구원과 신체적·물질적(복지) 욕구(needs)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선교란 교회가 사람에게 대해 복음전도를 함으로써 영적인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독교적 안목으로 사회복지와 교육, 상담, 재활 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옹호, 사회운동, 제도 개선 등을 해나가는 총체적인 활동(이준우, 2014)을 말한다.

2) 각 교단의 실제적인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례

각 교단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살펴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긴급재난구호, 지역사회의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각 교단별 사회복지사업 부서와 주요사업

순	교단명	사업부서	주요사업
1	구세군 대한본영	사회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사업(후생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여성복지사업(여성의집, 그룹홈), 노인/장애인복지사업(복지관, 양로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복지사업(복지관, 푸드뱅크), 노숙인/재활사업(자활센터), HIV/AIDS(공동체 운영), 재활용사업(희망나누미), 상담사업
2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10개의 보육시설, 7개의 여성복지시설, 10개의 종합사회복지관, 5개의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총 25개의 노인복지시설, 7개의 장애인복지시설, 3개의 지역자활센터, 기타 18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3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유지재단	국내외 선교사업, 교육사업, 구호사업, 사회사업 및 복지사업 시행
4	기독교 한국침례회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	병원 및 극빈자 구제, 납골시설에 관한 사업,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수탁사업 수행

5	대한성공회	사회선교국	각 나눔의집(총 9개)의 협의체인 나눔의집협의회와 전문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그룹홈, 이주노동자를 위한 살림의 집 등 총 70여개)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운영
6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한신)	복지부	복지사업(양로원, 지체부자유자 요양원), 교육사업(어린이집, 유치원), 수양관 운영 등 기독교 사업과 은급금 문제 등을 취급할 복지원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7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재정복지부 사회복지위원회	육영사업, 의료구호사업, 복음전도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세미나
8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통합)	사회봉사부	경건절제환경/녹색교회운동, 환경선교정책협의회, 환경활동가양성사업, 사회복지선교현장개발활성화, 사회선교정책개발, 사회봉사 사회선교 훈련사업, 특별/국내외재해/긴급구호활동, 인권 및 사회문제 대응, 교회와 사회포럼, 독도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책
9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합동)	총회 사회복지재단	총회 산하 교회와 각 기관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총회 사회복지(노인·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10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	사회복지국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실버타운, 상담소 등 전국에 110여개의 기관 운영
11	한국기독교 장로회총회	복지선교부 (한기장복지재단)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9개의 장애인복지관, 5개의 노인여가복지시설과 1개의 청소년시설 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대상 위탁사업 및 지원사업,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컨설팅, 북한동포 및 해외지원사업, 물품배분사업,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업 등을 시행

이상에서 보게 되는 각 교단별 사회복지사업 부서와 주요사업의 내용들은 대체로 일반 사회복지실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해 보인다. 선교사업 혹은 복음전도사업 등으로 따로 떼어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차별화되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 등으로부터 수탁 받아 정부 보조금을 통해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게 하는 현실이다.

여기서 모순되는 사항들이 발견된다. 앞서 살펴본 각 교단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은 '교회의 본질과 영성의 외연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정작 각 교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사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와 함께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만한 사회복지 조직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정책적 이념과 방향이 실제 실행되는 사업들과의 논리적인 연결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문제의식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는 이제 한국교회가 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해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필요하니까 한다는 인식에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성찰이 요구되는 것

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생색을 낸다는 지역사회의 오해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제로 한국교회가 자부담을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사회복지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이미지로는 이런 순수하고 헌신된 모습을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주요사업들마다 일반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경영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이용자의 욕구 중심 서비스, 사회정의에 대한 통찰과 용기 있는 실천, 인간존엄성의 추구, 인간관계의 중요성 인지, 성실함을 동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 진실, 정의 등 일반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통찰력과 투명성보다도 훨씬 앞서야 한다.

나아가 성육신의 영성에 기초한 이용자 중심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성을 추구하는 실천 전략이 구체화되어 각 단위 사업의 목표에 녹아져서 실제 사업 수행으로 펼쳐져야 한다. 이러한 성육신의 영성³⁶⁾은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이해(understanding)와 공감의 모범이 된다. 성육신의 영성에 기초한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첫 사랑과 뜨거운 가슴을 유지한 채 가장 현장적인 활동으로 채워지게 된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성육신의 영성으로 복지대상자들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실천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영성이 주도하는 사회복지실천은 복지대상자(client) 중심, 복지대상자 우선, 그리고 복지대상자 참여의 사회복지실천 윤리와 가치의 기초를 견고히 하게 한다. 동시에 ‘지금-여기(now & here)’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성을 추구하게 한다.

2.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차원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례

사회복지사업을 전문화하고 특히 정부나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운영은 이제 기독교 및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작업이 되었다.

국내 온라인 포털 네이버(Naver)에서 ‘교회, 기독교, NGO, 재단, 법인, 복지’를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3,701개의 웹사이트가 검색되었다. 그 중 기사자료를 제외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총 79개로 나타났다. 그 중 단체 중심의 법인 55개와 개 교회에서 설립한 법인 24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6)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중심 이념은 ‘내려가서 하나 되기’다. 그래서 지옥의 흑암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십자가의 빛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만큼 어둡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 오셨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비참한 죄수의 자리에까지 내려 가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이다(에베소서 3: 17-19).

1) 단체 중심의 기독교 사회복지법인과 사업 운영 사례

단체는 주로 NGO를 의미하는데 이들 NGO 단체들이 설립한 기독교 사단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은 총 55개로 이들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단체 중심의 주요 기독교 사회복지법인별 사회복지사업

순	재단명	설립년도	설립목적	주요사업
1	개척자들	2001	평화 실현을 위해 인류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하고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나가서 하나님나라의 공의와 평화와 기쁨을 전파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훈련하여 파송	평화교육, 평화기행, 평화캠프 등 국내외 연대활동 추진 월드서비스, 긴급구호(로힝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2	거제도 애광원	1952	한국전쟁 시기 피난민들이 내다버린 영아 7명을 보살피기 시작해 영아보육시설로 확대, 1978년 지적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여 운영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애광원, 장애인요양 거주시설 민들레집,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성빈마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애빈, 거제애광학교, 옥수어린이집, 기타 부속시설 운영
3	국제푸른나무	2010	인도적 대북지원단체로 출발, 우리의 형제인 북한과 사랑을 나누고, 청년 인재를 키워 미래를 준비하고,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힘을 합하여 뉴코리아 건설	대북사업: 대북 장애인 지원, 대북 어린이 지원, 보건복지 지원, 남북문화교류, 장애인 예술·체육 지원 국내사업: 통일리더캠프, 통일콘서트, 통일세대를 위한 포럼, 통일 전문가 양성사업
4	굿네이버스	1991	한국을 대표해 전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설립	국내전문복지사업, 국제구호개발사업, 사회개발교육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해외 자원봉사사업, 대북지원사업
5	글로벌케어	1997	지구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의료와 복지의 손길을 통해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설립	의료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회원병원(국내 무료이동진료, 국내외 긴급구호 자원봉사활동 및 대상자들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
6	기독교 세진회	1968	간힌 자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돕고자 설립	교정복지사업(수용자 지원, 출소자 지원, 교정사역자 지원), 수용자가족 돌봄사업(가족만남의 날 지원, 꿈나무 수련회, 수용자자녀 멘토링), 교육교화사업(자원봉사자 양육교육, 화해와 용서 프로그램), 홍보/기념사업(세진 음악회)
7	기독교 연합봉사회	1955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종합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	후생학원,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어린이회관, 행복한우리복지관, 용두어린이집, 부사어린이집, 예빛어린이집 운영
8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1987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설립	자발적불편운동(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 불편운동,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교회 신뢰운동(목회자 세상읽기 뉴스레터, 투명한 재정운동, 신뢰도 여론조사 다시보기, 교회세습반대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좋은사회운동(부채해방운동, 공명선거운동, 투명성운동), 바른가치운동(바른

				가치TF, 바른가치 세미나), 청년운동(청년 TNA(Talk&Action)7기, 청년월레포럼 '슬기로운 청년생활'), 기독교윤리연구소,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 기윤실 교사모임 등의 자치운동과 여러 기독교시민단체들과 협력운동 진행
9	기아대책	1989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자 설립	8개의 복지사업센터와 8개의 복지관, 44개의 행복한 홈스쿨 등을 통해 생계주거 지원, 교육지원, 문화정서지원, 건강의료 지원 등을 하는 국내복지사업과 국제구호 개발, 북한사업 등을 진행
10	나눔과기쁨	2004	'소외된 사람이 없는 세상 만들기'를 추구하며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되는 민간사회안전망운동 단체로 전국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참여로 출발	국내사업: 풀뿌리민간복지육성, 반찬나눔운동, 발마사지봉사, 푸드뱅크, 복지개혁, 위기의전화, 미소금융, 나눔기자교육, 청소년사업 국제사업: 국제구호사업, 국제개발사업, 북한동포직접돕기
11	나섬공동체	1996	외국인근로자들과 이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출발해 '나그네를 섬기고, 나눔으로 섬기고, 나아가서 섬기는' 사역으로 확대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 나섬교회, 재한몽골학교, 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나섬어린이집, 뉴라이프미션 동대문비전센터, 사랑나눔가게 운영
12	남북나눔	1992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	북한어린이돕기운동, 북한농촌시범마을조성사업, 긴급구호, 연해주 고려인 돕기, 베트남 가가호호 프로젝트
13	다니엘	1955	경천애인(敬天愛人)의 기독교정신으로 전쟁고아들을 위한 수용·보호시설로 설립되었으나 1972년부터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특수학교, 직업재활시설로 확대운영	다니엘복지원, 다니엘학교, 다니엘직업재활원, 다니엘주간보호센터, 다니엘단기보호센터, 방배주간보호센터, 다니엘의 집(1호~4호) 운영
14	다일공동체	1998	다일공동체의 화해와 일치, 섬김과 나눔의 정신에 입각해 설립	국내 무료급식(밥퍼나눔운동본부)과 무료병원(다일천사병원) 운영, 중국, 베트남, 탄자니아, 우간다,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미주 등지에서 NGO 활동 진행
15	말아톤 복지재단	2005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모델 뿐만 아니라 세계에 모범이 되는 이상적인 복지모델을 구축하고자 설립	3곳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창출을 위한 '울커피엔터', 직업훈련 및 보호작업장 '사랑_on', 그룹홈 '실만한 물가', 장애아동 및 청소년으로 구성된 '스윗하모니오케스트라', 장애인잡지,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운영
16	무지개동산 예가원	2001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충분한 재활사역을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와 통합을 위한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성인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예가원, 해오름의집, 무지개주간보호, 무지개그룹홈1호, 무지개그룹홈2호, 장애인 희망의 학교, 무지개활동일터 운영을 통해 일반재활, 직업재활 등을 진행
17	밀알 복지재단	1990	한국밀알선교단을 모태로 설립, 이동의 어려움과 장애로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이 땅의 소외된 이들을 지원	26개의 장애인복지사업, 8개의 노인복지사업, 6개의 지역사회복지사업, 7개의 아동보육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의 국내사업과 장애인재활복지사업, 아동지원사업, 보건의료사업, 사회적기업 개발, 긴급구호사업 등의 해외사업
18	밀알천사	2011	1995년 자폐성장애틀 가진 천사들과 봉사자 짝꿍들이 매주 토요일 산을 오르던 봉사모임에서 출발해 자폐성장애틀들의 자립을 지	자폐성장애틀 직업재활을 위한 사회적기업 래그랜스 운영, 밀알천사 정기산행, 자폐성장애틀 자립지원,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성장	
19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1998	기독교 신앙과 밥상공동체 설립자의 이타정신에 따라 어려운 이웃에게 하늘같은 밥과 사랑의 연탄을 나누고자 설립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연탄은행,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자활시설, 연탄교회, 연탄은행전국협의회, 키르키즈스탄연탄은행, 통일한국 동북아연탄은행
20	베데스다 복지재단	1976	베데스다선교회로 시작한 기독교 단체로 우리 주변의 그늘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고자 설립	국내외 복지사각지대 복지시설 설치, 장애아동치료센터, 취약계층 나눔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 문화예술 나눔사업, 공간나눔사업, 복지계몽사업, 사회복지연구교육사업, 인재개발양성사업, 해외구호사업, 한반도통일복지사업, 외국인근로장애인섭검사업 진행
21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1986	빈곤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설립	아동결연사업, 위기아동사례관리, 나눔사업(건강과 기초생활, 문화, 교육, 성장환경 조성, 마음, 꿈키움나눔), 지역아동센터, 방임학대아동쉼터, KB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및 시도지원단, 국제협력사업
22	사랑과평화 복지재단 호세아동산	2005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와 치료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호세아동산 운영
23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본부	2004	위험에 빠져있는 생명을 외면하거나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설립	응급환자 돕기 자원봉사 운동, 일반인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 지원, 응급의료체계 개선 운동, 응급환자 권리 보호 운동, 인명존중사회 만들기 운동, 목적사업에 관한 국제 협력 및 지원활동
24	샘복지재단	1997	기독교 정신으로 의료와 복지를 통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	영양특별식품(RUFT) 공급, 단동복지병원 사역, 사랑의 왕진가방, 사랑의 왕진버스, 긴급구호, 선샤인 프로젝트, 사랑의 저금통, 민들레학교
25	세이브더 칠드런 코리아	1953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	아동권리옹호, 국내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육 및 발달 지원, 해외개발사업, 긴급구호 및 국제개발협력옹호 활동
26	신망애 복지재단	1983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장애인 및 지역사회 노인들의 재활 및 보호와 치료(요양) 사업을 통한 복지증진	신망애이룸터, 참누리중증장애인거주시설, 차오름근로작업장, 단기보호센터, 그룹홈/체험홈, 주간보호센터, 어울림작업장,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등 시설을 통해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 스포츠재활 진행
27	안산 이주민센터	1994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 서남노회와 부천노회에서 전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 시화공단지역에 이주민의 선한 이웃이 되고자 설립	이주민 인권, 노동상담, 다문화선교 현장개발, 한글교실, 문화활동, 중국동포연합회 지원, 다문화가족협회 지원, 자원활동가 모임 진행 이주여성쉼터 숲샘, 이주여성상담소, 교시안의 집, 다문화공방 운영
28	양무리마을	1989	전문적인 치료 및 개인적인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인간다운 삶 영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아름다운집, 나눔의 집, 행복의집, 기쁨의집을 통해 사회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직업지원, 지역공동체지원, 인권교육 진행

29	애란한가족 네트워크	1960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혼모·부자의 준엄과 권리, 복지가 보장되는 평등사회 구현	미혼모부자지원센터, 미혼한부모생활시설 (애란원, 마포애란원, 애란영스빌, 애란모자의집, 애란세움터), 미혼모취업사관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위기임신지원센터 운영
30	에덴 복지재단	1980	장애인의 요양, 재활 및 보호사업과 특수교육, 직업교육, 아동복지사업, 영유아보육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형원, 에덴장애아어린이집,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구로장애인보호작업장, 지암어린이집, 산들어린이집, 푸른빛어린이집, 은평어린이집, 구립울고운어린이집, 구립가운어린이집, 화곡사무소 운영
31	엔젤스 헤이븐	1959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장애인,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밑알이 되고자 설립	은평천사원에서 2012년 엔젤스헤이븐으로 법인명칭을 변경함. 국내사업(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해외사업(아동교육사업, 자립지원사업, 봉사단 파견, 인재양성사업, 장애와개발사업, 인도적지원) 운영
32	여전도회 작은자 복지재단	1999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애인, 무의탁 어르신 등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작은자라 칭하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설립	생활비 지원사업, 장학금지원 등의 후원사업을 비롯해 호남작은자의 집, 여성쉼터, 경북작은자의 집 · 작은자재가노인복지센터, 보성군립노인요양원 밝은동산 운영
33	우양재단	1983	장학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남한 및 탈북 청년들의 학업과 사회환원활동을 지원하며, 농어촌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NGO	사회환원남북청년, 농어촌섬김, 먹거리와 이웃돌봄, 해외사업 등
34	월드비전	1950	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서 설립	국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분야별특별사업,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국제구호사업(재난대응, 식량위기대응사업, 취약지역 및 국가지원사업), 북한사업(농업·농업교육, 일반구호, 꽃피는 마을), 국내사업(사랑의 도시락, 꽃때말교육, 위기아동지원, 아동권리, 사례관리), 옹호사업(세계시민교육, 캠페인/정책)
35	참사랑 복지재단	1993	참사랑 선교가족회(재가복지)로 출발해 버려진 노인, 행려자, 부랑인, 노숙자, 장애인, 고아 등을 돌보면서 안식처를 제공하고자 설립	인천효성참사랑소망의집, 인천고잔소망의집, 사단법인참사랑복지회, 서울화곡참사랑소망원, 경기구리참사랑노인복지센터, 인천갈산 참사랑노인복지센터, 인천남구 노인복지센터, 인천참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인천지부 운영
3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948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며 행복을 가꾸어가도록 돕고자 설립	한국복지재단에서 2008년 어린이재단으로 재단명칭을 변경함 빈곤가정지원, 보육, 보호, 교육, 문화예술, 해외지원, 긴급구호, 북한지원 사업, 교육센터, 실종아동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지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37	태화 복지재단	1921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큰 평화(泰和) 실현	전국 12개의 사업기관을 포함, 42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전국 각 지역에서 이용자에 따라 전문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 캄보디아 바탐벵태화지역복지센터, 라오스 비엔티엔태화지역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태화사회복지연구소 운영

38	평생돌봄	2012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 교육과 치유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인재활과 사회통합을 이끄기 위해 설립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도서출판 한장연 등 운영, 연구, 출판, 복지, 재활, 국내외 교류와 협력사업
39	한국교회 복지재단	1985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이를 실현시켜 빈곤의 악순환 현상을 감소하여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설립	재소자 및 출소자에 대한 교회복지서비스, 가족기능회복서비스, 무의탁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서비스,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녀에 대한 보육육아서비스
40	한국교회 봉사단	2008	2002년 창립된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를 모태로 하며, 교회 혹은 교단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오던 섬김의 사역을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로 엮어 내는 사역 수행	사회복지, 재해구호, 자원봉사, 화해사역을 통해 '소통하는 한국교회', '성숙한 한국교회' 구축
41	한국기독교 사회봉사회	1963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 8개 교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연합하여 설립한 기독교 사회봉사 전문기관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구촌의 불우한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	국내결연사업(소년소녀가정, 장애인가정, 결손 및 빈곤가정), 해외아동결연사업, 장애인 휠체어 지원 사업, 북한지원사업, 국내외 긴급구호
42	한국기독교 의료선교협회	1968	'의료를 통해 복음을 땅 끝까지'라는 모토 아래 기근과 지진, 빈곤 등으로 아파하는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실천	의료선교사 양성, 문서 및 매체 선교, 선교지원사역, 긴급재난구호, 안식년 은퇴선교사 노후생활을 위한 안식관 건립 추진 등
43	한국 밀알선교단	1979	재가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던 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봉사하며, 각 교회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사랑의 캠프, 정기모임(화요모임, 목요모임, 금요성경공부), 선교적 중보기도학교(SIW), SIW 해외단기선교, 수화교실, 수화찬양단, 장애체험교실, 문화사역(소리보기중창단, 밀알양상블, 밀알북카페), 출판부(월간 밀알보, 단행본 발행)
44	한국 생명의전화	1976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훈련받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게 함으로써 생명 사랑의 아름다운 사회 건설	전문상담: 전화상담, 의료상담, 종교인생상담, 일반면접상담, 법률상담, 사이버 상담 교육: 상담원교육, 사이버상담원교육, 자살예방전문교육 활동: 생명사랑 캠페인, 대학생 생명지킴이 봉사단 운영, 생명존중 프로그램 보급, 자살시도자 및 생존자 지원사업 시설운영: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새싹어린이집, 여성노숙인쉼터 아가페의 집
45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1996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장애인 선교와 이를 위한 장애인 복지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하여 각 선교단체 간의 유대강화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설립	장애인선교 연합사업, 교육·계몽·서비스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 홍보 및 출판사업
46	한국컴패션	1952	한국의 전쟁고아들을 돕기 위해 설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미, 카리브 연안 빈곤아동 결연후원, 보호사업, 북한사업, 재해국가 구호사업

47	한국해비타트	1994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976년 미국에서 시작한 비영리단체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집과 마을을 짓고 희망을 전함	현재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활동하며 약 80만 세대의 가정 자립을 지원함. 주거빈곤퇴치, 자립지원프로그램, 나눔문화 확산, 자원봉사활성화, 소외계층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48	한국YMCA 전국연맹	1903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 향상과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이룩	청소년운동, 시민운동, 사회교육, 사회체육, 유아교육, 국제교류 활동 복지시설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근로자복지관, 문화복지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자활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49	한국YWCA 연합회	1922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건설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복지사업단, 부속시설(은학의집, 버들캠프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운영
50	한기장 복지재단	1995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선교정책과 비전 속에 설립	종합복지관 8곳, 장애인복지관 9곳, 1곳의 청소년시설, 53곳의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10곳, 지역아동센터 16곳, 지역자활센터 5곳, 시니어 클럽 3곳, 푸드뱅크 5곳, 노숙인지원시설 2곳 등 지역사회대상 복지서비스 위탁 사업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컨설팅, 북한동포와 해외지원서비스
51	한아봉사회	1992	성숙한 한국교회의 힘을모아,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아시아 특히 인도차이나의 형제자매들과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	어린이·청소년 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의료보건사업, 지도자 개발 사업, 여성지원사업, 사회환경개선사업, 지역환경보전사업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52	한코리아	1991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로 출범하여 국내외 가난하고 소외되고 분쟁지역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지원	한민족복지재단에서 2013년 (재)한코리아로 재단명칭을 변경함 북한동포지원사업, 해외동포지원사업, 해외사업, 긴급구호사업, 세상을 바꾸는 착한 장난감 캠페인 등
53	함께하는 사랑밭	1986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수용시설 개념에서 생활시설 개념으로, 다수의 공동체에서 소수의 공동체로, 열악한 시설에서 행복한 가정형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함께하는 사랑밭’의 이념임	국내사업: 사회공헌사업, 화상치료 지원사업, 난치병 지원사업, 긴급생계 지원사업, 두리모자립 지원사업, 시설운영 지원사업, 국내결연 사업, 나눔교육, 그린월드 국제사업: 쉼터, 결연 사업, 보건의료 사업, 빈곤퇴치 사업, 교육지원 사업, 지역개발사업, 긴급구호 사업
54	홀트 아동복지회	1995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사업을 통해 설립	요보호 아동 보호 및 양육, 아동입양 가정연결, 입양관련 사후 상담지원, 미혼한 부모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보호, 자립, 취약계층 지역복지지원, 어린이집 운영, 국내외 입양가족 위한 캠프,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365베이베케어키트, 장애인특

				수교육 홀트학교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장학 사업 및 해외빈곤가정교육, 영양실조 예방치료 지원
55	희망나누리	2009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소외된 이들의 어려움을 도우며 사회복지의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소망브니엘복지재단에서 2015년 희망나누리로 재단명칭을 변경함 재가지원사업, 특수아동교육사업,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미아장애인찾기, 장애아동 물리치료사업 등을 위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비전하우스,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희망재가복지센터, 희망복지홈 등 운영

2) 개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과 사업 운영 사례

개 교회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은 총 24사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개 교회가 설립한 주요 기독교 사회복지법인별 사회복지사업

순	재단명	설립년도	설립교회	설립목적	주요사업
1	가나안 복지재단	1995	가나안복지교회	가나안복지교회가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 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적장애인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복지구현에 기여하고자 설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나안근로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공동생활가정) 가나안홈 운영
2	굿프렌드 복지재단	2007	꿈의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가족과 같은 눈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	안산시 와동종합사회복지관, 시립 성안어린이집, 굿프렌드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센터 운영
3	굿피플	1999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회적 소외로 인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의 극심한 생존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지구촌 이웃들의 현실을 알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눔 실천이 실질적인 희망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국경을 초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	선한사람들에서 2007년 굿피플로 법인명칭을 변경함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지역 개발, 가난퇴치, 아동보호, 교육, 질병 예방과 치료, 긴급구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사업과 북한사업도 수행함. 동작실버센터, 양평쉼터, 그룹홈 천사의 집, 드림홈 운영
4	동산 복지재단	2008	안산동산교회	안산동산교회의 비전 중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섬김으로 사회적 책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설립	푸른동산보호작업장, 맑은동산주단기보호시설, 동산그룹홈,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안산시상록장애인단기보호시설, 동산노인복지관, 카페설만환물가, 큰술베이커리&카페, 동산아동청소년지원센터, 푸른꿈동산학교 운영

5	대길 사회복지 재단	2002	대길교회	이웃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설립	대길홈케어센터, 사랑의집 요양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푸른초장, 엘립주거시설, 장수대학, 성인문해교실, 해밀합창단, 다니엘방과후교실, 아동독서지원사업, 영과의료봉사단, 심리상담사업, 취약계층지원사업, 무료급식사업 등 운영
6	로템 복지재단	2005	덕천교회	복음과 구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자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사회복지 실천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로템노인요양원, 로템재가노인지원센터, 로템직업재활센터 등 운영
7	명성 복지재단	2004	명성교회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어려운 이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요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실천	저소득가정자립지원사업, 독거어르신무료급식사업, 명성어르신한글교실, 어르신의료진료, 이미용서비스, 명성지역아동센터, 서울학사관, 선교관 '가나안의집' 등 운영
8	분당우리 복지재단	2006	분당우리 교회	교회 비전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 삶의 희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지재단'을 목표로 설립	에듀투게더센터, 태평지역아동센터, 걸쳐투게더센터, 다문화카페우리, 우리주간보호시설, 성남시한마음복지관 등 운영
9	빛과소금 복지재단	1999	초량교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1999년 초량교회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으로 시작되어 사회 각 계층의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통해 보다 밝은 세상,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카네이션방문요양센터, 빛과소금장애인활동지원센터, 우리동네영아학교, 아동공동생활가정 파랑새그룹홈, 동구사랑 김장김치나눔, 사랑의 바자회, 사랑의 도시락, 사랑의 침구세탁,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사하시니어클럽 등 운영
10	사랑의 복지재단	1996	사랑의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좇아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책임을 모토로 하여 이웃의 고난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설립	장애인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 운영시설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도모, 교회사회사업 아카데미·기독교복지순례·사회봉사대학 등 교회사회사업 훈련프로그램 운영
11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1992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사업법과 사랑, 봉사, 선교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은행나무어린이집, 새문안어린이집 운영
12	성민	2003	순복음 노원교회	순복음노원교회가 모체인 법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순복음노원교회의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이어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설립	성민(장애인)복지관, 마들사회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성민재가장기요양센터, 성민사회복지연구소 등 운영

13	성민원	1998	군포제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전능자의 뜻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며 섬김, 나눔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설립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성민노인복지센터, 성민요양원, 성민노인상담소, 군포시니어클럽, 군포푸드뱅크, 사랑의이동급식, 천국사다리 호스피스,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성민실버합창단, 성민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복지학교, 방과후비전교실, 군포제일선교회, 성민에듀투게더 운영
14	수원순복음교회유지재단	2014	수원순복음교회	소외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에 섬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수원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평생교육원, 종합복지사업단 운영
15	수원중앙복지재단	2008	수원중앙침례교회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영혼을 구원하고 희망을 심어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능동적 복지실천	버드내노인복지관, 굿월코리아수원,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중앙호스피스, 수원중앙주간보호센터, 광교노인복지관,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6	안산제일복지재단	1999	안산제일교회	이웃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선(善)한 미래를 열어가고자 출발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안산제일복지의원, 빛과등지, 행복한학교, 어린이양의 집,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제일요양원, 제일유치원, 제일글로벌 키즈센터 운영
17	엘림복지회	1975	여의도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미취업 청소년의 선도, 직업훈련과 자립지원, 무의탁 노인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립	남부기술교육원, 엘림노인전문요양원, 구립영등포실버케어센터, 구립영등포케어센터 운영
18	영락사회복지재단	1957	영락교회	"부도를 잃고 혼자된 복순이"를 돕고자 시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영락보린원, 영락지역아동복지센터, 영락경로원, 영락소규모요양원, 영락재가노인서비스센터, 은빛사랑채 영락노인주간보호센터,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영락모자원, 영락애니아의 집, 영락주간보호센터, 합실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 장학사업 실시
19	이레복지선교회	2004	이레전원교회	사회취약계층과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돕고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보호 상담 및 치료와 자활 사업, 취업알선 진행	노숙인 자활시설, 알콜치유 시설, 자활동동체 원형심리적 치유(교화)를 위한 원예 및 농업작물 경작, 재소자 교화사업, 국내외 선교사업 및 봉사활동
20	주안복지재단	2014	주안교회	주안장로교회의 비전을 바탕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문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설립	주안에종합사회복지관, 나래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시니어복합문화공간애늑재, 긴급구호사업

21	지구촌 사회복지 재단	2002	지구촌교회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이웃의 어려움을 끝까지 책임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4가지 영성을 바탕으로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주위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 실현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사업, 복지지원사업, 홍보자원개발 및 관리사업, 인재개발 및 연구사업, 해외협력사업, 비전전략사업, 북한이탈주민사업 운영시설: 지구촌노인복지센터, 지구촌 보호작업장 수탁시설: 용인시사랑의 집, 성남시울동생태학습원,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수지구 네트워크팀,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용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탄아르담복지관
22	필그림 하우스	1999	송계골교회	필그림하우스(Pilgrim House)는 ‘순례자의 집’이란 뜻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설립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필그림교육센터, 필그림교육센터, 순례자의 집(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3	하늘행복 나눔재단	2006	과천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봉사 소명을 갖고 장애인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설립	사랑의 동산, A+과천행복 노인복지센터, 과천아이돌봄지원센터, 시립공원마을 어린이집 운영
24	호산나 복지재단	2000	호산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인간사랑과 그 정신을 바탕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굿월코리아, 호산나 제1,2 그룹홈, 시각장애인을 위한 포털사이트, 호산나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이상과 같이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차원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개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내용은 국내외 긴급구호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단체 중심의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사업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일반 사회복지실천에서 지향하는 사업수행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잘 담아내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히 한국사회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단체 중심의 기독교 사회복지법인과 개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파악할 수 없었던 사실이다. 향후 이와 같은 법인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된다면 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영역들이 개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운실’ 사례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사용된 ‘기운실’ 자료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시상된 농어촌 교회가 30곳, 중소도시 교회가 35곳, 대도시 교회가 24곳 그리고 특수목적지역 교회가 9곳, 특별상 8곳으로, 총 106개 교회 사례였다. 좋은 교회상을 수상한 분석 대상 교회들의 성도수를 살펴보면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가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명부터 300명 미만의 교회가 24곳, 300명부터 1,000명 미만의 교회가 16곳, 1,000명부터 2,000명 미만의 교회가 19곳 그리고 2,000명 이상의 큰 교회가 17곳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교회의 절반 이상이 성도수가 300명 미만의 크지 않은 교회들이다. 이들 교회들의 사회복지실천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수상교회

순	수상교회	회	수상구분	주요 복지사업	교인 수
1	강북구세군교회	1회	대도시	무료급식, 노인복지	80
2	대구신암교회	1회	대도시	평생교육원	1,500
3	대길교회	1회	대도시	무료급식	1,000
4	도림교회	1회	특별상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5,700
5	목민교회	1회	대도시	노인복지	5,800
6	봉동시민교회	1회	농어촌	노인복지	100
7	산음교회	1회	농어촌	노인복지	30
8	안성성결교회	1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1,000
9	양무리교회	1회	대도시	청소년복지	107
10	예산짚풀교회	1회	농어촌	농촌봉사	73
11	고척교회	2회	대도시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	2,700
12	구세군 모산교회	2회	농어촌	무료급식	102
13	남원살림교회	2회	중소도시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	320
14	대구남산교회	2회	대도시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2,000
15	덕수교회	2회	특별상	노인복지	1,500
16	도원동교회	2회	대도시	무료급식	1,500
17	동두천 낙원교회	2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250
18	송전교회	2회	농어촌	노인, 청소년복지	300
19	순복음푸른초장교회	2회	농어촌	노인, 청소년복지	90
20	오산침례교회	2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1,500
21	해인교회	2회	특수지역	노숙인쉼터, 무료급식	125
22	도고중앙교회	3회	농어촌	밀반찬나누기	84
23	둥지교회	3회	특수지역	장애인복지	150
24	새성남구세군교회	3회	중소도시	청소년복지	60
25	새터교회	3회	대도시	아동복지	80
26	성터교회	3회	대도시	아동복지, 외국인노동자	250
27	오중제일교회	3회	농어촌	노인복지	70
28	일산은혜교회	3회	중소도시	암환자 쉼터	1,000

29	제천명락교회	3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1,743
30	창원한빛교회	3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1,500
31	효성중앙감리교회	3회	대도시	노인복지	1,579
32	구세군여주교회	4회	농어촌	아동복지, 푸드뱅크	60
33	분향교회	4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500
34	안산제일감리교회	4회	중소도시	무료급식	272
35	예수사랑교회	4회	대도시	문화센터	900
36	울곡교회	4회	농어촌	노인복지	200
37	익산북일교회	4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2,000
38	일산세광교회	4회	중소도시	문화센터	1,800
39	장항성일교회	4회	농어촌	장애인복지	500
40	평안교회	4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250
41	평창동산교회	4회	특수사역	아동복지, 푸드뱅크	40
42	거진성결교회	5회	농어촌	노인복지	250
43	구세군남안성교회	5회	농어촌	노인복지	100
44	당진감리교회	5회	농어촌	노인복지	6,524
45	부천밀알교회	5회	중소도시	외국인노동자	250
46	살림교회	5회	대도시	노인복지	50
47	세계로교회	5회	농어촌	푸드뱅크	100
48	신명교회	5회	특별상	노인복지	450
49	완도제일교회	5회	농어촌	노인복지	1,000
50	일산예일교회	5회	중소도시	아동복지	800
51	하나로교회	5회	대도시	노숙인쉼터	100
52	한무리교회	5회	중소도시	아동, 노인복지	60
53	남원제일교회	6회	중소도시	장애인, 노인복지	1,000
54	백석교회	6회	중소도시	환경	50
55	빛과소금교회	6회	중소도시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	40
56	울산교회	6회	대도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	2,500
57	전원성결교회	6회	농어촌	지역복지	50
58	청주울광교회	6회	중소도시	아동, 노인복지	200
59	하남은광교회	6회	대도시	아동, 노인복지	600
60	후영순복음교회	6회	농어촌	지역복지	54
61	희년교회	6회	특수사역	아동, 청소년, 여성복지	20
62	거룩한빛광성교회	7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5,100
63	과천소망교회	7회	중소도시	노인, 아동복지	3,500
64	광양대광교회	7회	중소도시	다문화복지	1,400
65	기쁨누리교회	7회	중소도시	아동복지, 지역복지	65
66	기성아산교회	7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150
67	소사제일교회	7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100
68	신기교회	7회	농어촌	노인복지	50
69	영월 서머나교회	7회	농어촌	푸드뱅크, 목욕봉사	120
70	전주안디옥교회	7회	특별상	의료, 교도소 선교, 노인대학	5,000
71	포항경동교회	7회	특수사역	청소년복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100
72	홍성제일교회	7회	농어촌	노인복지, 아동복지	1,000
73	강진읍교회	8회	농어촌	노인복지	800

74	구세군북춘천교회	8회	중소도시	아동복지	35
75	금산평안교회	8회	농어촌	연탄은행	90
76	보길중앙교회	8회	농어촌	한글학교, 지역아동센터	35
77	세계비전교회	8회	대도시	빈 집 수리, 방문요양	320
78	송탄중앙침례교회	8회	특별상	노인복지, 아동복지	2,000
79	예닮교회	8회	대도시	호스피스, 정릉종합사회복지관	1,430
80	완도성광교회	8회	특별상	아동, 청소년, 노인, 다문화복지	2,943
81	인천목민교회	8회	특수사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40
82	충주제일감리교회	8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1,500
83	큰사랑교회	8회	대도시	지역아동센터, 노인문화교실	50
84	해성교회	8회	중소도시	복지관, 유치원, 아기학교	850
85	강남교회	9회	대도시	개안수술지원, 기장복지관 지원	3,000
86	녹양교회	9회	중소도시	문화사역, 노인대학, 방문요양	500
87	물금읍교회	9회	농어촌	노인복지	50
88	삼산교회	9회	농어촌	물리치료, 경로대학, 상담소	110
89	영서교회	9회	대도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지원	1,345
90	온양농아인교회	9회	특수사역	지역아동센터, 수화통역, 장애인복지	58
91	인천교회	9회	대도시	장애인자립프로그램	450
92	정자교회	9회	중소도시	지역아동센터, 노인대학, 도서관	240
93	주님의교회	9회	특수사역	아동, 여성, 장애인복지	50
94	홍천동면감리교회	9회	농어촌	환경, 생명 직거래 사업	50
95	계명성교회	10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200
96	과천교회	10회	중소도시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6,000
97	구세군진보교회	10회	농어촌	노인복지, 밑반찬봉사, 미용봉사	70
98	동련교회	10회	농어촌	노인복지	300
99	수원중앙침례교회	10회	특별상	노인복지, 외국인복지, 호스피스	12,000
100	열방교회	10회	특별상	장애인, 아동복지	1,800
101	영신교회	10회	대도시	노인복지	600
102	작은샘글사랑의교회	10회	특수사역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120
103	전주동신교회	10회	중소도시	노인복지	2,100
104	창동영광교회	10회	대도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7,000
105	풍기성내교회	10회	농어촌	경로대학, 무료급식, 목회간호	950
106	화전별말교회	10회	중소도시	마을청소, 경로잔치, 장학금 지원	75

이상의 내용을 주요 사업 내용별로 간략히 요약³⁷⁾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37) 지면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수상교회의 사업현황과 각 사례들의 단위 사업별 세부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표 7>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수상교회의 주요 복지사업

회	교회 수	주요 복지사업
1	10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무료급식, 평생교육원, 농촌봉사
2	11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외국인노동자, 노숙인쉼터, 무료급식
3	10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외국인노동자, 암환자 쉼터, 밀반찬봉사
4	10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무료급식, 문화센터, 푸드뱅크
5	11	아동복지, 노인복지, 외국인노동자, 노숙인쉼터, 푸드뱅크
6	9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역복지, 환경
7	11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다문화복지, 지역복지, 푸드뱅크, 목욕봉사, 의료, 교도소 봉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8	12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복지, 한글학교, 연탄은행, 호스피스
9	10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역복지, 물리치료, 방문요양, 도서관, 환경, 생명 직거래 사업
10	12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외국인복지, 호스피스, 목회간호, 무료급식, 밀반찬봉사, 미용봉사

1) 성격

이들 교회들이 수행했던 사회복지실천과 운영했던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들을 ‘4가지 차원의 8개 질문’을 통해 공공신학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성격³⁸⁾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1) 첫 번째 차원(사업의 배경 혹은 필요성) 분석 결과로 나타난 성격

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원칙과 ‘개 교회’ 중심 경향의 공존

‘기운실’이 선정했던 교회들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원칙 하에서 교회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 부설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도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운영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교회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했던 이유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회복지실천을 한다는 교회는 한 곳도 없었다. 모든 교회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파악된 바로는 이들 교회가 감당하는 지역사회를 향한 사회복지실천은 진정으로 타자를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교회는 세상을 위해 그 자신의 존재까지도 희생하는 바로 그 십자가 정신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 교회에서 나타나는 원칙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는 주님의 교훈과 같이 크게 흥

38)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들이 과연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질문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사례들은 ‘기운실’이 한국교회의 모범으로 선정한 경우인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우수하게 인정받은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는지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회들의 사례들은 향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성을 도출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보하거나 광고하지 않고 조용히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실천하는 것이었다. 둘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으로 사역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나 배경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 요구 및 욕구 등이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자료들에 근거하여 기술되어 있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일부 교회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전문 사역자들이 지역사회 환경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했으나 그와 같은 내용들도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소개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 배경의 모호성은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뚜렷한 상호작용 및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이 같은 예상을 반영하는 또 다른 결과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과 인근의 다른 교회들과의 연계와 연합이 매우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뚜렷한 원칙은 있으나 실제 사업 수행의 근거가 되는 지역의 욕구와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근에 있는 타 교회 및 유관 사회복지 시설이나 조직 등과의 협력적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교회의 현실 상황에 따른 접근이 아닌 '개 교회' 중심적인 경향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 교회' 성향의 활동은 '공공성'과 '공공선'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끔 한다. 물론,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지역의 욕구에 기초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교회 사례들도 있었다.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들을 제외한 중소형 교회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예산 짚풀교회와 대전 세계비전교회를 들 수 있다.

먼저 예산 짚풀교회(제1회 수상교회)는 농촌의 현실을 배경으로 생명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교회 사회복지실천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례였다. 예산 짚풀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시의 실직자·노숙자 및 귀향·귀농·영농 희망자에게 농촌 정착 및 영농 창업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생명농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상담 및 지원을 하였다. 두 번째는 도시 소비자와 청소년을 위한 자연생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도-농 직거래를 통한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 및 판매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회원들에게는 친환경적인 건강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네 번째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랑의 빈집수리 운동'을 통한 예산군의 인구 증가 및 농촌 빈집수리 사업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농촌정착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적절하면서도 안정적인 정착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또한 예산 짚풀교회에서는 두 개의 부설 기관(혹은 시설), 즉 '더불어 살기 생명나눔운동본부'와 '예산 친환경 농업인연합회'를 통해 친환경 농업인을 육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및 영유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예산 짚풀교회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복지실천으로 농촌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농촌 목회와 더불어 실

질적인 농업활동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개하였으며 농촌 현장이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 왔다.

다음으로 대전 세계비전교회(제8회 수상교회)는 빈집수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대전 세계비전교회가 위치한 대전광역시는 경부고속국도와 호남고속도로가 분기하고,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가 분기하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 간의 교통의 요충지다. 그 중에서도 대덕구는 대전의 동부 지역으로 대전 IC, 대전역, 복합터미널 등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덕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다. 대전 세계비전교회가 빈집수리 사업을 시작한 첫 해인 2005년 대전은 새로 유입된 10만의 가구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당시 이촌향도 현상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6대 광역시들에 비교해서 대전이 유독 큰 유입률을 보였고, 더군다나 이 시기의 대전 유입 인구의 특징으로 실직·부도·경매 등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재기를 위한 자활도시로 대전광역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들에 대한 대책이 더욱 시급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로 당시 대전 세계비전교회는 오갈 데 없는 가정을 구원하는 대책으로 빈집수리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했다. 그 결과 경제적 위기로부터 오갈 데 없는 가정을 지원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아동의 생활을 보호하였으며 가정의 위기 극복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나. 목회 전반을 지원하는 도구적 사역으로서의 인식

이들 교회들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교회의 전체적인 목회 사역과 연계되어 있었음에도 세부적으로 이들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기보다는 목회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도구 내지 목회적인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교회의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서클 활동 정도로 시행되는 것을 넘어섰고, 목회자의 말씀사역과 교회교육사역, 행정사역, 구역(셀, 다락방, 목장 등) 사역 등 교회 전체의 사역과 연계되고 있었지만 교회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과적으로 목회를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중요한 전략이자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였다.

구체적인 실례로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부설 기관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핵심 인력이 대부분 동일 교회 교인들이어서 교회의 종교적 활동과 사회복지실천 업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가령 교회에서의 직분 수행과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활동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설명된 경우가 매우 미흡하였다. 어떤 면에서 이는 교회와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시설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교회의 사역과 사회복지실천의 업무 상 경계의 모호함과 혼재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담임목사가 시설장을 겸직하거나 목사의 사모가 시설장을 맡는다든지 교회의 시무 장로가 법인의 주요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 등은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지역사회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교회와 직결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명분이 뚜렷한 근거와 이에 따른 정확한 업무 지침 및 원칙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교회의 목회적인 도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2) 두 번째 차원(사업의 목표) 분석 결과로 나타난 성격

가. ‘사업 추진 교회’ 중심적인 장기적 목표와 단기 목표의 설정

이들 교회들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장기적 목표와 이를 향한 단계적 단기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었다.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장기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단기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장기 목표에는 대체로 교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분야, 교회 예산과 자원 동원을 위한 분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장기적 목적 등 각 분야에 대한 이념적 목적(goal)이 설정되어 있었고, 각각의 목적에는 측정 가능한 구체적 수치로 설명된 목표(objectives)가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목표에 단기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과제(tasks)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목적과 목표들은 일관성과 지속성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의 순서가 정해져 있었고, 각 교회의 상황에 합당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었다. 일부 교회에서는 구체적인 단계별로 사업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도 했다. 이를 테면 그 첫째 단계에서 교인들의 의식전환을 도모하고, 둘째 단계에서 교인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셋째 단계에 들어가서 목회의 방향을 사회복지실천 사업들에 맞춤으로써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가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특히 각 단계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쉽고 보람 있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하여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숙인,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 단계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부담 형태의 기독교사회복지관이나 부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축하여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에까지 이르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공공신학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목표들은 거의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개별 교회의 목회적인 비전과 목회 활동의 장단기 목표들과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 교회들이 설정한 사회복지실천의 장단기 목표들은 비록 그렇게 표명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목회자의 성공적인 목회 실현과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 비전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울러 그와 같은 목표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교회의 이해관계와 목회자의 선호도에 기인하고 있다. 즉 담임목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적극 반영되고 그 결과 교회의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지고 그와 같은 교회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방향에서 결국은 사업의 목표들이 설정되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문

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닌 교회 스스로가 이미 결정한 대로 사업의 목표들이 수립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되면 그와 같은 사회복지 사업은 교회의 사업이지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면서 아울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은 되지 못한다. 당연히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제시된 사업의 목표들에서 나타날 수 없게 된다. 몇몇 교회들의 경우 지역사회 조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조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미흡하였다.

물론 담임목사 혹은 교회의 핵심적인 중직자의 가치와 비전에 의해 실행되는 사회복지실천 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일정 부분, 성공적으로 교회 사회복지실천이 수행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 또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하거나 사업 시행 초기의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점차 지역의 요구와 욕구를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사업 목표

분석 대상 교회들의 사회복지실천 단위사업별 목표들은 권리 지향적이며 욕구 중심적이기보다는 다소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들 교회들은 사업의 목표들을 지나치게 미시적인 자원 제공이나 지원 등에 국한하여 설정하고 있었다. 지역의 구조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의식을 변혁시키려는 시도는 미흡해 보였다. 나아가 사회행동이나 사회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는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비스 대상자들을 자립적이며 생산적인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사업 목표에 반영했던 ‘홍천동면교회’의 사례를 비롯한 몇몇 교회 사례들이 있었다. 특히 부천 밀알교회(제5회 수상교회)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천 밀알교회는 소형교회임에도 2001년부터 저소득층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660㎡ 규모의 교회 건물에 방과후 교실을 설치하고 어린이 4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무료 급식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교회는 또 노인교실과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호시설인 ‘아름다운 집’을 설치,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 보호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과 생활상담,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요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자 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부천 밀알교회는 19년간 지속적으로 교회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을 열정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부천 밀알교회에서는 교회 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적인 성장

보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초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에 집중하고, 지역사회와 클라이언트, 교회, 복지센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목표로 어린이집 운영, 주간보호시설, 밀알노인교실, 이주노동자 지원, 결혼이주여성 아동들의 보육지원,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앞서 제시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기관의 목적을 살펴보면, 부천 밀알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중 하나인 부천 이주노동복지센터는 부천 인근 지역 이주노동자와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법률, 구제, 중재와 함께 상황이 매우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취업, 출입국, 생활, 공동체 참여 등 상담 지원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화적·제도적·경제적 혼란을 조성하고 계도하는 목적을 세부적으로 가지고 운영 중이다. 이러한 여러 교회 사회복지 사업들의 목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부천 밀알교회는 공공성을 잘 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3) 세 번째 차원(사업의 내용과 수행 과정) 분석 결과로 나타난 성격

가. 과도한 종교성이 반영된 사업 형태

이들 교회들의 사회복지실천 단위사업들의 실질적인 내용들과 수행 과정을 살펴 보았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현상은 어떤 계기에서든 예배, 기도, 찬양 등과 같은 종교 행위들이 사업 내용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면 자연스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교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종교적 행위와 의식 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도 의례적으로 종교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이 일반 여타의 사회복지 활동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를 통한 종교성이 차별화의 관건이 되어선 안 된다. 즉, 서비스 이용자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요하는 형태의 실천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조직임과 동시에 섬기는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만 드러나야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을 감당하고 있는 실무자 내지 사역자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은 그 사역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성령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수상 사례들’에서 구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복음을 강요했다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지 않았던 교회들이야말로 오로지 말로만의 복음전도를 강조했을 것이다. 그리

고 잘못된 신학적 기초에서 활동했던 일부 기독교 재단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강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 자신들의 영성은 실제로 중요하게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사업 내용 가운데에 종교적 행위와 활동 등이 다른 사업 내용들과 동반하여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시작예배와 기도 등이 진행되거나 사업 평가 시에 ‘기도회’가 등장한다든지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종교적 행위가 조금이라도 실제 사업 내용에 비해 강조되거나 부각되는 순간 교회사회복지실천은 ‘영성적인 사회복지실천’이기보다는 ‘종교적인 사회복지실천’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종교성은 기독교 영성과 동일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강조하는 종교성에 기초하는 서비스 과정 속에서는 결코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갈 수 없음을 주의 깊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 특화된 서비스의 부족

이들 교회들의 사회복지실천 단위사업들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사업들이 일반 사회복지실천에서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교세 현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을 뿐이었다. 대형교회와 중형교회, 그리고 소형교회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었다. 대형교회는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중형교회와 소형교회는 자체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주로 동원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형교회와 중형교회, 소형교회가 상호 연계하여 서로 ‘원원’하는 창의적인 접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일부 교회들을 제외하고서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특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사업의 내용만을 보면 일반 지역사회복지실천과 유사하거나 2018년 6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교회의 경우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업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하지만 특별한 교회도 있었다. 평안전문요양원,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평안아카데미, 평안어린이집, 평안무료휴식처, 경천전문요양원, 경천무료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평안교회(2006년 제4회 수상교회)였다.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노인 중심의 특화된 사회복지시설을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교회였다. 교회의 역량을 최대화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 정직하고 성실한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분석 대상 교회들의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소 어설피 보이기도 하고, 전문성의 한계 또한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를 현장에서 열정적이면서도 정

직하며 성실한 실천개입으로 진행하고자 애쓴 사례들을 다수 발견하였다. 몇몇 사례에서 도출되었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사례 교회 실무자들 모두가 진정성 있는 실천 활동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실제로 수행했던 사업 내용과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인 구세군 여주교회(2006년 제4회 수상교회)는 구세군 여주 나눔의 집을 부설 기관으로 설립하여 독거노인과 빈곤 가정을 위한 반찬배달 사업 및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구세군 문고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구세군 문고는 여주 동부지역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지역에 있는 도서관의 역할로서 또한 정보나눔터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으며, 지역아동들과 지역주민 모두가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공익형 사업으로는 ‘노노 케어’와 ‘손주 사랑’이 있고, 시장형에는 ‘실버자연카페’, ‘구세군 손주 사랑 인형극단’, ‘자연 사랑 마트’가 있다. 나아가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구세군 여주지역아동센터는 기독교 이념과 구세군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 아동 및 가정에 복지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들 사업들이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각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자료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서비스이용자들과 봉사자들의 소감,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을 뒷받침하는 교인들의 모습 등이 상세하게 나타난 자료들을 통해 진정성 있는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공공신학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기독교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랑과 정직, 관용, 성실, 평화, 희생, 용기 등이 실제 개입의 현장에서 투영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의 예배가 뜨겁고, 목회자의 설교가 감동적이며, 성도들의 찬양이 기쁘고 즐거운 것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한 예배를 하고, 그러한 설교를 듣고, 그러한 찬양을 드린 사람들의 삶에서 수준 높은 정직성과 성실성이 나타날 때, 세상은 감동을 받고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세속의 사회복지 기관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직하고 진실하며 위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실하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서비스이용자들을 대해야 한다. 적어도 교회 사회복지실천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석 대상 사례 교회들 중 많은 경우에서 이와 같은 정직함과 성실함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4) 네 번째 차원(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로 나타난 성격

가. 실제적인 서비스 개입 효과성을 측정하는 평가의 부재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나는 성격에서 가장 시급히 체질 개선을 해야 할 영역이 ‘평가’이다. 열정과 성실로 교회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였음에도 사업의 성과 내지 질적인 변화 혹은 서비스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분석 대상 교회들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의 단위사업 평가들이 몇 명의 대상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산출(out put) 평가에 국한되어 있었다. 일부 교회들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까지 파악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서비스 개입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의 질적인 변화’까지 측정하는 결과(Outcomes) 평가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주 소수의 몇몇 교회들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대상자들의 변화를 관찰하여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관찰한 결과 내용이 지나치게 주관적인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개입 이후에 서비스 제공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는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교회 사회복지실천이 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나.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부재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내용으로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는 것이다. 공공신학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교회의 ‘공공성’과 지역사회를 향한 ‘공공선’이 드러나는 성과(performance)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즉 ‘공공성’과 ‘공공선’이 실천 개입을 통해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들에서 평가해야 할 평가 내용에 대한 성찰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평가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접근도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모습은 마치 열심히 했으나 그 결과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과제

이상과 같이 고찰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성격을 토대로 선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공공신학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준거 틀’의 개발

본 연구는 공공신학 관점으로 ‘공공성’과 ‘공공선’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연구 분석 틀을 갖고, 분석 대상 교회들이 자체 기록하여 ‘기운실’에 제출해 수상 대상이 되었던 ‘사업 보고서’들을 고찰하는 창의적인 시도를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구

체적이며 보다 객관적인 연구 분석 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구를 수행했다는 한계도 동시에 지닌다. 중요한 사실은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성격을 도출하고, 그 개입의 결과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공신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및 ‘공공선’, 시민의식 등에 대한 개념을 담아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준거 틀’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윤리경영 기준 등과 같은 공공신학 관점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참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시혜적 차원에서 인권 중심의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전환

점점 더 한국교회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이 수행될 때, 요구되는 것은 인권에 기초한 실천 개입을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서비스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사명이 된다. 공공신학에 기초한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비인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권리가 소중함을 재발견함으로써 출발해야 한다. 인권의 보장은 공공신학 관점이 지향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존중하고 이를 권리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안전장치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보다 선제적으로 인권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당히 방어적인 차원에 머물러 왔다는 사실이다. 이에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인권 옹호와 인권보장운동을 확산시켜나가는 인권 중심의 접근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3) 예언자적인 사회행동 기능의 수행

기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기본 접근은 의·식·주 문제, 의료문제, 교육문제, 직업문제, 오락문제, 보호문제 등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을 하는 데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역사적인 전환기마다 강단에서 외치는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불행을 초래하는 사회구조적인 악·불의·불평등의 혁신을 도모하고 또 인간의 마음을 전면적으로 고치도록 선포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회행동으로서의 개입 실천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말씀의 선포와 능동적인 사랑의 실천 등을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옹호하고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대변해 가야한다.

(4)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한국교회는 사회복지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회복지적인 접근보다도 강력하게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능해왔다.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감당해 왔던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회복지실천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지역주민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큰 힘이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끔 돕는 ‘지지망’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 왔다.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책임 지려는 믿음으로 일궈나갔던 한국교회의 많은 사회복지실천 단위사업들은 상실과 좌절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지원’이었다. 그럼에도 보다 더 지역사회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와 같은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들이 요구된다. 활발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실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전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알고자 하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갖춰야 할 것이다.

(5) 복지친화적인 지역사회 추구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지역사회를 ‘복지 공동체’화 해 나가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사회취약계층을 서비스 대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체를 복지친화적인 지역 공동체로 변화해 가도록 지역사회의 문화 변혁 운동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있는 곳이 복지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만 갖고는 결코 증명될 수 없다.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사랑실천은 하나의 지역사회가 얼마만큼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달려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원받아 실질적인 ‘공공-민간’ 협력체제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실천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수행해 왔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를 말아도 단지 업무가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됨으로 자꾸만 더 말아 달라고 정부로부터 요구받을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는 실천활동의 ‘선순환’ 효과가 활발하게 나타나야 한다.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이 복지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6)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실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의 영역인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육체적·심리적·윤리적·영적인 범주를 포괄해야 한다. 실제로 교회는 복지대상자들의 실제적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그들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교회는 영적 구원과 영적 치료뿐만 아니라, 전인적 치료를 위한 다양한 생활영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사회와 환경에 의해 존중받아야 할 내적 존엄성을 가지고 복지의 삶을 선택할 권리와 생존의 가치를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의 가치는 재산소유의 풍요로움이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눅 12:15),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물론 한국교회는 시대가 요구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세속의 일반 사회복지실천에서 다루는 모든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사회복지실천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적인 욕구도 충족하게끔 애써왔다. 하지만 일반 사회복지실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중심에서 실천개입을 하려는 노력을 향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사회를 살피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누구보다도 민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

V. 내다보기: 전망

1. 결론

본 연구는 현재 한국교회의 사회적 존재 방식의 문제가 사회적 활동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공공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 활동은 철저하게 지역사회라는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성에 기초한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존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공신학 관점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본질적인 가치로 정립될 필요가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공동체적 속성을 갖고 있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통해 인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신학을 통해 교회는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원화하지 않고 통합해 갈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이 지역사회에 구현되기 위해서도 공공신학 관점은 크게 유용하다. 창조질서나 사랑, 정의, 인간됨 등 기독교 신앙이 교회 성도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교단 및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차원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례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공공신학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기윤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발간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에 제시된 수상 대상 106개 교회의 사업을 연구 대상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성격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원칙 하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실천 개입을

활발하게 해 온 교회 공동체였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사업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그 목표들도 본 연구에서 공공신학의 관점으로 개념화 했던 ‘공공성’과 ‘공공선’을 지향하기보다는 ‘개 교회’ 중심적이었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을 목회의 도구로서 인식하려는 경향 가운데에 종교성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반면 특화된 서비스는 부족하고 실제적인 서비스 개입 효과성을 측정하는 평가와 평가 내용의 부재도 파악되었다. 더욱이 ‘공공성’과 ‘공공선’을 비롯하여 공적신학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지표도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상과 같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성격을 변혁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를 ‘첫째, 공공신학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준거 틀’의 개발, 둘째, 시혜적 차원에서 인권 중심의 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전환, 셋째, 예언자적인 사회행동 기능의 수행, 넷째,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다섯째, 복지친화적인 지역사회 추구, 여섯째,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실천’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사회복지실천 단위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성장해 나가는 데에 주목할 것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변혁시키는 사회개혁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의 모범을 태동시키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이준우, 2015).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공공신학적인 관점을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은 그동안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걸어온 왜곡된 행태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변혁 운동을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단지 교회공동체의 일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테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선구적이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독교적 사회복지실천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의 공동 현안을 교회의 이익이 아닌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협업을 해 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신학적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사회변혁적이며 교회 갱신적인 접근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비전과 전망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모델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은 단지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데에 만족하거나 여러 형태의 사회복지실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주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변혁시키는 사회개혁운동과 사회복지실천의 모범을 태동시키는 결과를 낳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제는 사회복지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호의적이지 않는 시각은 때때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종교적인 행위의 일부로 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순전한 신앙을 왜곡하고 심지어 우리의 실천 활동을 폄하하려고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지만 담담히 그 모든 손가락질과 곱지 않은 눈길을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한국교회 스스로가 뼈저린 자기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새로운 모델을 비전으로 삼고 한국사회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환호하고 감사해 하는 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교회(기독교 및 교회의 사회복지법인을 포함)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암울한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로 인한 계층적 갈등, 차별과 배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치료와 회복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복지실천으로 ‘탈바꿈(Transformation)’되어야 한다.

열심히 역동적으로 활동했지만 본의 아니게 서비스대상자를 낙인화시키고, 대상화시키면서 정작 그들을 동등한 위치의 형제자매로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철저히 자기를 비워 모두 다 나눠주는 실천 개입 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테면 가능하면 개교회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조직이나 시설,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재단이나 잘하고 있는 인근 교회들을 자원봉사로 힘껏 섬기는 체제로 사회복지실천의 형태를 전환해볼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편협한 울타리를 헐고 지역사회 전체를 섬기겠다는 각오로 실천 개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을 퍼주는 식의 서비스대상자를 ‘을’이 되게 하는 ‘갑과 을’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대상자의 존엄성에 상처를 입히는 사회복지실천을 철저히 지양하고 서비스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통한 종교적 억압이나 강요 등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때때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제시되고 그 결과로 서비스 대상자가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서비스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보장되었는지 여부이다.

둘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통전적인 기독교적 영성을 개발하고 확립한 기초 위에서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특별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활동이어야 한다. 즉,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 잡힌 통찰과 복음주의적 복지신학에 근거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영성적 사회복지실천의 이론과 전략 및 실질적인 개입방법을 개발하여 실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성적 사회복지실천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실천가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을 교회로 이끄는 행위를 뜻하지 않는다. 구령을 통한 전도는 없지만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삶, 세상의 변혁을 추구하는 자세, 공동체를 존중하는 배려 등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실천가들의 모습이 실천 활동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영성적 사회복지실천이다.

셋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변혁 운동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선구적이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교회는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와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민족의 문제를 과감하게 짊어지고 가야 한다. 즉,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와 통일 문제 등을 실천 개입의 과제로 적극 받아들여 높은 수준의 민주적 역량과 평화로운 민족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한국교회(기독교 및 교회의 사회복지법인을 포함)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모델이 견지해야 할 원칙을 실제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데에 유용한 몇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망을 대신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실현될 때, 그 전략의 내용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실천 전략들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수행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교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순수한 ‘인간사랑’으로 실천되게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은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는 경건성과 순수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성적 토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 상처를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의 인적·물적 자원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사랑의 선물’로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핵심은 초기 사회적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구조를 만드는데 있다. 전반적인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들을 협의체로 조직하여 교회 자원의 누락,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한국교회봉사단과 같은 연합 조직체가 앞장 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교회봉사단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교회들을 연합 조직체로 구성하는 일을 유도해야 한다.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별로 연합회를 묶어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들과 기독교 사회복지법인들을 한국교회와 연결시켜 사회복지실천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안전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안전망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별·대상별로 취약계층의 구호망을 수립해야 한다. 즉, 네트워크가 실제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과 협조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단위와 지역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의 질서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복지대상자들, 정신 및 신체장애인, 다양한 질병환자(폐결핵, 간질병, 각종 암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및 실직자, 빈곤한 고령자 및 독거인,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 체류자, 다문화가정 등을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에 솔선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원활한 교회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협력하여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 결정에도 깊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교단 및 교파를 초월하여 지역교회의 교회연합운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역단위의 교회 사회복지실천을 위하여 지역교회들이 범 교단적인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연합활동은 군소 교회들의 부족한 복지 예산과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만일에 동일한 지역에서 다양한 교단 및 교파별, 혹은 각 교회 단위로 교회 사회복지실천이 추진된다면, 하나님나라를 지향하는 신학적 차별성뿐만 아니라, 교파 및 교단 이기주의와 독선적 자기 합리화에 빠질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교회는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화’와 ‘세계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화의 과제는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복지친화적 지역화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될 때, 교회를 북한 지역에 설립하는 데에만 한국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북한을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로 세우기 위해 선결되어야 과제로 판단된다. 동시에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이 세계화 되기 위해서는 특화된 교회 사회복지실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지역 내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 협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출신의 지도자들을 교육하여 해당국가에 파견하는 한편, 현지 국가에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교육제도와 프로그램을 수출하여 현장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 18-19)

참고문헌

- 강아람. “선교적 교회론과 선교적 해석학.” 『선교신학』 36, 2014.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자료집, 2017.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 시상식.” 자료집, 2003~2012.
- 노영상. “21세기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구: 공공신학의 신학적 의의와 윤리적 과제.”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제2회 정기논문 발표회 자료집, 2008.
- 박보경. “선교적 해석학의 모색.” 『선교신학』 18, 2008.
-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복지, 2000.
- 박종삼.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16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6.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철저 요청.”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공문, 2018.
- 손의성. “지속가능한 생명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써의 교회의 지역복지거버넌스 참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2, 2014.
- 이준우. “교회 협력에 기초한 장애복지실천에 관한 사례연구 : ‘남서울은혜교회’와 ‘한국말선교단·말알복지재단’ 간의 상호연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2015.
- 이준우.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성과 연구.” 한국기독교사회복지학회·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16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6.
- 이준우. “공공신학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사회복지실천의 성격과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 2017.
- 이준우. 『교회사회복지실천의 새 지평: 복지선교와 복지목회』. 파주: (주)나남, 2014.
- 이준우 외 2인. 『기독교 이해 그리고 삶』. 고양: 서현사, 2015.
- 이형기 외 7인. 『공적 신학과 공적 교회』. 용인: 킹덤박스, 2010.
- 이형기. 『하나님나라와 공적 신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 장신근.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공공신학의 형성 배경과 지형에 대한 연구.”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제1회 정기논문 발표회 자료집』, 2008.
-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인 교회 빌딩겐 IMC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20, 2007.
- 정승현. “선교의 성경연구 동향분석.” 『미션네트워크』 1, 2012.
- 한국교회봉사단. 『한국교회봉사단 창립 10주년 기념자료집: 섬기면서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섬기는 한국교회』. 서울: 도서출판KD, 2017.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Orbis books; 1991. 김병길·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선교

- 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Hainsworth, Deirdre K., Paeth, Scott R. eds., Public Theology for a Global Society: Essays in Honor of Max L. Stackhouse (Grand Rapids: Eerdmans, 2010).
- Newbigin, Lesslie. “The Congregation as Hermeneutic of the Gospel.”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1989).
- Newbigin, Lesslie.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Grand Rapids: Eerdmans, 1995).
- Stackhouse, Max L. “The Pastor as Public Theologian”. The Pastor as Theologian, ed. Earl E. Shelp, Ronald H. Sunderland (New York: Pilgrim, 1988).
- Volf, Miroslav.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s, 2011).
- Wright, Christopher JH.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InterVarsity Press, 2013. 정옥배·한화룡 역,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서울: IVP, 2010.

아이굿뉴스(2017.09.13). “기장 1년새 교인 ‘9% 감소’, 통합은 6년째 줄어”

- 개척자들. <http://wcfgw.nayana.kr>
- 구세군대한본영. <http://www.salvationarmy.or.kr>
-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kr>
- 굿피플. <http://www.goodpeople.or.kr>
- 글로벌케어. <http://www.globalcare.or.kr>
- 기독교대한감리회. <http://www.kmc.or.kr>
-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http://www.kmcswf.or.kr>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http://kehc.org>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http://cemk.org>
- 기독교한국침례회. <http://www.koreabaptist.or.kr>
- 기아대책. <http://www.kfhi.or.kr>
- 꿈의교회(굿프렌드복지재단). <http://www.dream10.org>
- 다일공동체. <http://www.dail.org>
- 대길사회복지재단. <http://daegilwelfare.com>
- 대한성공회. <http://www.skh.or.kr>
-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http://www.kosin.org>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한신총회. <http://hdhs.kr>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 <http://www.pck.or.kr>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 <http://www.gapck.org>
 덕천교회(로댐복지재단). <http://dcpc.or.kr>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http://www.babsang.or.kr>
 부스러기사랑나눔회. <http://www.busrugy.or.kr>
 빛과소금복지재단. <http://www.thesarang.org>
 사단법인 국제푸른나무. <http://www.greentreekorea.org>
 사단법인 기독교세진회. <http://www.sejin.org>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http://www.joyofsharing.kr>
 사단법인 나섬공동체. <http://nasom.or.kr>
 사단법인 남북나눔. <http://www.sharing.net>
 사단법인 밀알천사. <http://www.miral1004.org>
 사단법인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http://www.kgsn.org>
 사단법인 성민원. <http://www.sungminwon.org>
 사단법인 평생돌봄. <http://www.psdob.or.kr>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http://www.medicalmission.or.kr>
 사단법인 한국밀알선교단. <http://www.kmil.or.kr>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http://www.kmad.or.kr>
 사단법인 한아봉사회. <http://www.hanah.or.kr>
 사회복지법인 가나안복지재단. <http://foundation.canal004.or.kr>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http://www.taiwhafound.org>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 <http://www.akw.or.kr>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http://www.ucsc.or.kr>
 사회복지법인 다니엘. <http://daniel.ne.kr>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복지재단. <http://www.gapck.org/welfare>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 <http://forest.modoo.at>
 사회복지법인 말아톤복지재단. <http://www.malaton.or.kr>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재단. <http://www.mswf.or.kr>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예가원. <http://www.rainbowhill.org>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http://www.miral.org>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복지재단. <http://www.btsd.kr>
 사회복지법인 분당우리복지재단. <http://blog.naver.com/wooriwf>
 사회복지법인 사랑과평화복지재단. <http://www.lovepeace.kr>
 사회복지법인 사랑의복지재단. <http://www.sarangfare.org>
 사회복지법인 성민. <http://wfsm.or.kr>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http://www.icentral.or.kr>
 사회복지법인 신망애복지재단. <http://www.shma.kr>
 사회복지법인 양무리마을. <http://www.yangmury.kr>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http://www.edenwelfare.org>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http://www.angelshaven.or.kr>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http://www.elimtown.org>
 사회복지법인 여전도회작은자복지재단. <http://www.theleast.or.kr>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http://www.ynswf.co.kr>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http://www.jiguchonwelfare.or.kr>
 사회복지법인 참사랑복지재단. <http://www.chamlove.org>
 사회복지법인 필그림하우스. <http://pilgrimhouse.or.kr>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http://www.lifeline.or.kr>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http://prokwfm.onmam.com>
 사회복지법인 호산나복지재단. <http://www.hsnwel.or.kr>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https://www.holt.or.kr>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 <http://www.hope1203.org>
 새문안교회(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 <https://www.saemoonan.org:586>
 샘복지재단. <http://www.samcare.org>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https://www.sc.or.kr>
 수원순복음교회유지재단. <http://swmf.or.kr>
 안산이주민센터. <http://www.migrant.or.kr>
 안산제일복지재단. <http://www.ansan1.co.kr>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http://www.sungkyul.org>
 우양재단. <http://www.wooyang.org>
 월드비전. <http://www.worldvision.or.kr>
 이레전원교회(이레복지선교회). <http://www.irechurch.com>
 주안복지재단. <http://www.juanwf.or.kr>
 초록우산어린이재단. <http://www.childfund.or.kr>
 하늘행복나눔재단. <http://cafe.daum.net/gcchsw>
 한국YMCA전국연맹. <http://www.ymcakorea.org>
 한국YWCA연합회. <http://www.ywca.or.kr>
 한국교화복지재단. <http://www.pici.co.kr>
 한국교회봉사단. <http://www.koreandiakonia.org>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http://www.charity.or.kr>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http://www.prok.org>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애란한가족네트워크. <http://www.aeranwon.org>
 한국컴패션. <http://www.compassion.or.kr>
 한국해비타트. <http://www.habitat.or.kr>
 한코리아. <http://www.hankorea.or.kr>
 함께하는사랑밭. <http://www.withgo.or.kr>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양혜원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우 교수님의 옥고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는 공공신학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을 조망한 연구로, 공공신학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오늘날의 안타까운 우리 현실에서 진정성 있는 교회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이론에 국한되거나 혹은 이론적 기초 없이 사례 등 경험적 자료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연구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 위에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져서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연구를 통하여 고찰된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이 수행한 연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단, 재단, 그리고 기윤실 자료까지 포함하는 대단히 풍부한 자료들을 다루어주셨습니다. 관련 연구를 해오면서 기초자료, 기본적인 현황 자료조차 찾기 어려워서 시작부터 난감한 적이 많았는데, 다양하고 풍성한 자료를 체계화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제시해주신 실천의 원칙과 전략들 역시 학계와 실천현장에서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논문을 세밀하게 읽으면서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고, 공공신학의 관점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지게 된 생각을 나누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분석 틀에 관한 생각입니다. <표 1>에 제시된 연구분석 틀은 사업 필요성(배경), 사업 목표, 사업 내용과 수행과정, 사업 평가의 네 차원에 대한 두 개씩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차원(사업 필요성, 사업 목표)과 아래 두 차원(사업 내용과 수행과정, 사업평가)의 첫째 질문은 서로 결이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두 차원의 첫 번째 질문은 공공성·공공선이 결여되어 있는 특정 상황(예: “사업이 추진된 배경 혹은 필요성이 교회 성장이나 교인의 신앙 성숙 등 교회의 필요와 욕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두 번째 질문과 대치되는 지점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에 아래 두 차원의 첫 질문은 해당 차원에 대한 전반적 현황에 대한 것(예: “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대상에 대한 수행과정은 어떠한

가?”)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공공성·공공선에 대한 구체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차원 중 두 차원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질문이 이루어지는 반면, 다른 두 차원에서는 전반적 현황과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는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네 차원 모두에서 각 두 개의 질문은 두 번째 질문으로 통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위의 두 차원의 질문들은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연결될 수 있고, 아래 두 차원에서는 결국 공공성·공공선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최종 분석대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객관적 분석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 분석을 시도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38쪽), 그럼에도 연구 틀이 조금 더 정교화되었다면 훨씬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성과 공공선이라는 두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공공성과 공공선은 개념적 정의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은 “공적 영역에서 교회가 의미 있는 종교 조직이라는 것을 세상에 설득하는 것”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긍정적인 사회적 존재감이 어떠한지”로, 공공선은 “내가 좋은 것만 아니고, 내가 좋은 것만도 아니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 “교회 사역이 교인 이외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유용한 정도”로 개념이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작적 차원에서는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후속연구를 통해서 공공성과 공공선을 기준으로 하는 실천의 준거 틀 개발을 말씀하셨고, 동일한 기준으로 교회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두 개념이 준거 틀이나 평가 기준 차원에서 구분되어 조작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지요? 혹은 지금과 같이 통합적 차원에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할지요?

다음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을 감당하고 있는 실무자 내지 사역자들이어야 한다”(35쪽)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독교(교회) 사회복지실천은 실천가의 영성에 뿌리를 두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바탕이고, 사회복지실천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가치 지향적이므로 실천가의 영성, 그 영성에 바탕을 둔 가치관이 실천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시된 최근 사례(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에 대한 종교 강요, 후원 강요 등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주의하라는 공문서 발송, 2쪽, 각주 11)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이지만 정부 지원금이 대거 투입되므로 공공의 성격도 배제할 수 없는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에게 특정 종교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특정 기관이 특정한 가치관을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전제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위탁 받은 경우), 그러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종사자들(기독교

인으로 제한하지는 않더라도 기독교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 고용하고, 고용된 종사자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스럽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일부 관련되는 지점에서, 공공의 성격을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딜레마를 겪을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한 지역사회복지관과 그 복지관에서 섬기는 실천가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교회)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전을 소망하면서 토론을 맺고자 합니다.³⁹⁾

태화복지관이 기독교 기관이라는 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 중 기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비기독교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중재한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회복지사가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기도와 같은 신앙적 요소가 가시화되지 않아도 신앙과 사회복지가 제대로 통합되는 “바나나 케이크”⁴⁰⁾ 같은 실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좀 그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던 것 같고요. 그게 저한테 막 큰 고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게 사실 교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해주신 바나나 케이크의 형태를 항상 저는 그 모임 안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모임을 제안해주신 어르신한테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서 ‘그냥 어르신께서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같이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반대하셨던 어머님한테는 ‘지금처럼 같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중재는 계속 했던 경험은 있고요.”

일반 프로그램의 당사자들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기쁘게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나 당사자들을 남달리 존중하는 자세 등을 충분히 체감하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

39) 다음은 토론자의 줄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2017), 신앙과 학문, 22(3)에서 발췌한 것이다.

40) 여기서 바나나 케이크는 신앙과 삶의 진정성 있는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섬김과 나눔’ 사업 준비교육(2012. 7. 25.)에서 본 연구자가 언급한 내용으로,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세 가지 방식을 생크림 케이크, 건포도 케이크, 바나나 케이크에 비유한 것이다. 생크림 케이크는 케이크 표면에 생크림을 바른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이원화된 채 가시적인 신앙 활동만 이루어진 경우, 건포도 케이크는 케이크 여기저기 건포도가 박혀있는 것처럼 신앙과 삶의 통합이 매우 단편적인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바나나 케이크는 바나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케이크에 바나나가 완전히 섞여진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의미 있게 통합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자는 신국원 교수(총신대, 신학과)의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유형화와 해당 비유를 접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냈다.

“하지만 10월 첫 주에 진행된 옹기종기 FGI에서 한 어머님께서 ‘옹기종기에 오면 일단 즐거워요. 내가 존중받는다든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가정에서 존중을 받겠어요? 사회에서 존중을 받겠어요? 별 것 하지 않아도, 이야기만 해도 좋아요’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담당자만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담당자가 당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ですよ.”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

이정우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분당노인종합복지관장

1. 서언

초창기 한국교회는 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닌 민족과 함께하는 민족교회였다. 민족을 위해 희생과 봉사하는 교회였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며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을 선도하는 영적공동체였다.

그러나 사회복지 활동을 주도하던 한국교회가 급변하는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외면하고 개교회의 성장에 집중하면서 민족교회로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교회봉사단(2017)에서 연구발표 한 “한국교회 사회봉사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 이를 대변한다. 기독교는 타 종교에 비해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지만 그 봉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는 타 종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전도 수단으로 삼아서’, ‘보여주기 식으로 활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민간단체들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준우 교수의 발제는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하고 고민하고 회복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 소견

제일 먼저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공공신학의 핵심관점인 공공성과 공공선을 실현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의 사전적 정의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다. 이것을 공공신학의 관점으로 기술한다면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긍정적인 사회적 존재감이 어떠한지’로 개념화할 수 있다. ‘공공선’은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善), 즉 공익성으로서 공동선(共同善)이라고도 한다. 공공신학의 관점에서는 ‘교회 사역이 교인 이외의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유용한 정도’를 말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공신학이 추구하는 이 공공성과 공공선이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발제자도 언급했듯이 올해 들어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지도감독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을 정도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직원들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고, 십일조 및 후원 강요하며, 교회 행사에 동원하고, 직원채용 및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고, 약속한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자체 해결하게 하는 등 공공성과 공공선과는 거리가 있는 몇몇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의 행태가 한국사회로부터 외면 받게 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이 사회적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로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리더십들이 공공신학에 기반한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하는 교회와 사회복지법인의 최고 의사결정자(담임목사, 장로, 당회, 대표이사 등)가 공공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사회복지실천을 전도의 도구나 성도들의 봉사의 장 정도로 인식하고, 교회의 홍보 수단으로 여기는 리더십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공공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회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의 부수적인 기능이 아니라 예배, 전도(선교), 교제, 교육(훈련)과 함께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주기능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한다.⁴¹⁾ 발제자의 연구에서도 개별 교회의 사업들은 교회의 목회적 비전과 목회 활동 장단기 목표들과 일치하고 있었고, 담임목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적극 반영되고 교회의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지고 사업의 목표들이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⁴²⁾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담임목사 및 핵심적인 중직자들이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사회봉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로 한국교회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 한국사회에 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보장과 윤리경영, 전문성에 있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보장은 공공신학 관점이 지향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교회 사회복지실천

41) [네이버 지식백과] 교회의 기능 [教會-機能, function of church] (교회용어사전 : 행정 및 교육, 2013. 9. 16., 생명의말씀사)

42)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의 미션과 비전

미션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한다.

비전 1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재단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품게 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복지재단

비전 2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지재단

우리의 이웃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결하며 적합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재단

비전 3 전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재단

우리의 이웃들의 세분화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재단

비전 4 교회사회봉사를 선도하는 복지재단

한국교회가 이웃을 품고 사회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며 격려하는 복지재단

과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옹호와 보장이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인 직원들의 인권과 복지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행복한 직원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명감만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들을 직원들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최소한 양해를 구하고 협의해야 한다.

발제자가 언급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조사 발표는 충격적이다. 기독교가 3대 종교 중 신뢰도가 최하위였다.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더 도덕적이어야 할 교회가 부패된 모습을 보일 때 더 실망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활동으로 ‘윤리 회복과 도덕 실천운동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⁴³⁾ 국가 기관과 지방정부의 평가와 지도감독을 통해 각 사회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리경영은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이 타 기관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경쟁력이어야 하고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믿음을 주는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전문성에 있어서도 직원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조사연구개발로 일반 사회복지시설 및 타 종교 사회복지기관보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네트워크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민간 및 공공 기관과의 네트워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크, 모교회와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교회 및 기독교 기관 간의 네트워크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된다. 특히 발제자가 제안한 한국교회봉사단과 같은 연합조직체가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을 지역협의체로 조직하여 교회 자원의 누락과 중복을 방지하고 합심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높이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때 보여 주었던 한국교회의 사랑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한국교회가 자유롭게 또한 공격적으로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사회복지를 통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복지선교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발제자는 사회복지를 통해 직접적인 선교를 구체화 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교회의 자원만으로 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독교적인 사회복지와 교육, 상담, 재활 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옹호, 사회운동, 제도 개선 등을 해나가는 총체적인 활동이라는 ‘복지선교’의 개념을 소개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한국

43) 국민일보 기사 “종교기관 신뢰도, 3년 연속 떨어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7836&code=23111111&cp=nv>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법인들이 주목해야할 개념이라 생각된다. 복음전도,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행동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인 교회의 자원으로 실현하여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회복지실천이 ‘복지선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결어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및 기관의 미션에는 대부분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대전제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대로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빵과 물고기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제자가 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만 치유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는 너무 조건이 많은 것 같다. ‘우리 교회 나오면 사랑해 줄게.’, ‘예수 믿으면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우리 교회 등록해야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려면 우리 교회 나와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조건 없는, 한없는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품는 한국교회, 기독교 사회복지법인이 될 수는 없을까? 물론 대부분의 교회들이 순수하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내세우는 교회들로 인해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전도의 수단으로 삼거나 보여주기식 홍보 수단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가? 당연히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도 영혼구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혜로워야 한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다.⁴⁴⁾ 정부의 공적인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도바울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는 본인이 직접 묻지 않는다면 어렵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고 후원하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많은 이용자들이 안다.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고 그리스도의

44) 고린도전서9장20-23절 20.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한다. 사회봉사가 전도의 목적은 아니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마저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민간에 위탁 운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전달 방식을 사회복지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지방정부에서 직영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전환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심사가 강화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역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2017년에 시범인증 심사가 진행되었고 경기도에서도 각 사회복지법인에 점검 매뉴얼을 배포한 상태이다. 기준이 미달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도태될 것이고 건강한 사회복지법인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기관들이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세밀히 점검하고 개선하여 한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

공공신학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들여다보고 내다보기에 대한 토론

정신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무총장

I. 토론 거리를 내놓으며

한국교회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이준우 교수님의 발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교회에 적지 않은 반응을 가져다 줄 것이라 여겨진다.

이번 발제내용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도출해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윤실의 사례를 통해 언급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매우 현실적인 것들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 제언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질문과 개인적인 염려와 기대를 토론거리로 내놓는다.

II. 발제내용에 따른 염려와 기대.

1. 하나님의 선교와 공공신학1. 교회의 공공성은 어떤 것인가?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 그 개념을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공공성이란 “어떤 사물 기관 등이 널리 일반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는 성격, 성질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 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발제 내용에서도 교회의 공공성을 언급하며 ‘교회의 공공성은 공적영역에서 교회가 의미 있는 종교조직이라는 것을 세상에 설득해야 한다’ 하고 있다. 교회가 의미 있는 종교조직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 또는 무엇으로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교회의 공공성을 세상에 알리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다소 어리석은 질문을 가져 본다. 개념정리가 명확해 질수록 현상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져보는 질문이다.

2.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시설운영 참여에 고찰에 대한 염려.

가. 교회의 다각화 시설운영 참여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

발제의 주요 내용이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시설 운영에 초점을 두고 전망과 과제를 살피는 것만 같아 약간 염려가 된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는 교인이라는 교회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여야 함과 동시에 교인들을 위한 교회여야 한다. 바꿔 말해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공공성과 개별성의 양면을 다 갖춘 시설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전망과 과제를 살피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마음이다. 이미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시설과 교우들을 위한 개별시설의 운영을 당연 시 해야 할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너무 앞선 지나친 염려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적 성격의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과 교회 교우만을 위한 개별 혹은 특별 시설로 교회의 시설운영이 다각화된 상황을 고려한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망과 과제가 되어야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염려이다.

나.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미흡에 대한 염려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참여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대동소이하다. 교회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전도 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발제 자료에도 '선교와 사회복지실천을 구분해 정부의 보조금을 1원이라도 받는 시설이라면 시설운영이 전도나 선교의 도구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공성과 공공선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 보완해 전도의 수단화로 이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참여의 목적에 교회 본질의 이념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신앙관일 수 있지만 교회가 행하는 모든 활동의 본질은 결코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회복지실천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이뤄야 하는 최종 미션은 영적인 케어까지를 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적인 케어는 배제하고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사회복지실천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옳은 접근이라 할 수 없다. 영적인 케어를 전도와 선교의 일환으로 여기는 인식이 문제인데 문제가 된 잘못된 인식을 전환시키려 하기 보다는 대중의 여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운영 참여는 삶의 문제 뿐 아니라 정신과 영혼의 문제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원을 하

는 것이라는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접근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행히 발제 자료에 복지문제와 영적구원을 하나로 연결한 전인적 복지선교를 제시하고 있어 그나마 개인적인 염려의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지역교회 간이나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간 수행하는 사업의 연계와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 교회가 속한 지역의 지역사회 문제는 교회 간 힘을 모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이유는 개교회 중심이라는 것 외에는 적절한 대안이 없음에 대한 아쉬움과 염려의 마음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개 교회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적극적 개입의 성격이 강해지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지역의 교단이 다른 교회들이 동일분야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시설이용 대상자 모집과 운영에 경쟁을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전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교회는 앞 다투어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교회봉사단이 조직되는 응집력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회 간 또는 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적극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3. 전망과 과제에 따른 기대

가.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1) 교회는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왜 참여하는가?

교회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담임목사가 사회복지나 복지목회에 대한 각별한 철학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교회의 양적 성장을 기대하며 참여하는 경우다. 배경이야 어떻든 교회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교회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지역조사 및 욕구 기반)시설을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발제 자료는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참여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원칙이 우선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운영 참여원칙이 교회의 양적성장 추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원칙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갖게하기를 기대한다.

(2) 목회를 지원하는 도구적 수단 탈피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교회의 상황과 여건은 다양하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교회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기대도 달라진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담임목사나 사모가 시설장으로 시설운영에 참여해 생계를 유지하며 목회를 이어가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 더러는 두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담임목사와 사모가 각각의 시설장 직을 맡은 경우도 있다. 또 부목사에게 시설장 직을 맡기고 교회의 사역과 시설 운영 업무 둘 다를 담당하게 하고 시설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목회 사례를 대신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목회를 이어가는 수단이 되거나 교회의 재정지출 없이 부목사를 두고 사역도 맡기는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모 있는 교회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회원 중 한 명을 법인행정책임자로서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직을 맡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적법함의 기준은 오로지 시설장 또는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역할만 온전히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가 목회사역과 사회복지사역을 동시에 담당한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과 같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다. 평가기준은 적법한 자가 적법하게 업무를 담당하는가를 판단한다. 교회가 참여한 사회복지실천과 시설운영이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 한 사람, 또는 한 교회로 인해 전체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목회의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3)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 하는 교회

교회는 사회복지라는 용어보다 구제와 봉사라는 용어를 더 감성적으로 느낀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 일시적이고 시혜적이고 자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의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접근과는 달리 사회복지에는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 문제를 받아들이고(intake) 개입(사정-계획-변화)을 통해 좋은 결과(종결)를 얻기까지 함께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달성 목표를 세운 후 개입하는 것이다. 교회도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을 따라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 함께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발제 자료의 제안처럼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화 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간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운영을 맡은 모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역의 교회가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실천을 해오는 것을 보고 지자체에서 복지관 운영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해와 시설운영에 참여한 사례도 있다. 이번 발제 자료가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참여하려는 교회들에게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복지공동체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Ⅲ. 맺는 말.

한국교회는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훌륭히 담당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을 섬기는 지역공동체가 되기 위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참여에 따른 부적절하고 온당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마련된 제도는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최고로 권리를 누리게 된다. 사회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제공자와 수여자 모두 제도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때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회는 교회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일반 사회에 적용하는 눈높이보다 훨씬 높게 그리고 강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발제 자료에 이준우 교수는 공공선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가 피해나 혹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에게 정말 좋은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공공선인 이라는 것이다.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발제가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함께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Memo